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원정책

현장 시선
모니터링
보고서

1. 개요
2. 요약 및 함의
3.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제언
4. 인터뷰 참여자 일반 현황
 - 1) 전체 사업주 일반 현황
 - 2) 전체 노동자 일반 현황
5. 업종별 사업주, 노동자 인터뷰
 - 1) 의류제조업
 - 2) 수제화제조업
 - 3) 디지털산업
 - 4)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 5) 금속가공업
6. 전문가 인터뷰

부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현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원정책
현장 시선 모니터링 보고서

이미원, 김환수

2022년 12월



동북권·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노동자에게는 건강과 생명에, 사업주에게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작은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1년 산재 사망자 2,080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 사망자는 81%나 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원 제도 자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동북권과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정부 지원 정책을 알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고 있는지, 현장에서 바라보는 개선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5개 업종 노동자와 사업주 59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보았습니다. 전문가 간담회도 3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알아도 부담 때문에 지원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부담을 낮춰줄 것,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 맞춤형 홍보,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주와 노동자 그리고 관련 단체의 총체적이고도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번 동북권과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의 「현장 적용 모니터링 보고서」가 한 바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서남권 센터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와 사고사망만인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사고 사망자 비율이 81%에 달할 만큼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만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을 현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담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연구가 변화되어가는 산업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향후의 정부지원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참여자 여러분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노동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I. 개요	1
II. 요약 및 함의	5
III.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제언	8
IV. 인터뷰 참여자 일반 현황	10
1. 전체 사업주 일반 현황	10
2. 전체 노동자 일반 현황	11
V. 업종별 사업주, 노동자 인터뷰(50인 미만 사업장 정부 재정지원사업 중심) ..	12
1. 의류제조업(서울시 추진,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참여 사업장)	12
1) 동대문구 사업주 인터뷰	12
2) 관악구 사업주 인터뷰	19
2. 수제화제조업	26
1) 사업주 인터뷰	26
2) 노동자 인터뷰	31
3. 디지털산업 산업	38
1) 사업주 인터뷰	38
2) 노동자 인터뷰	45
4.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52
1) 사업주 인터뷰	52
2) 노동자 인터뷰	60
5. 금속가공업	66
1) 사업주 인터뷰	66
2) 노동자 인터뷰	71
VI. 전문가 인터뷰	77
VII. 부록	87
1. 질문지	87
2.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재정지원사업 현황	93

I. 개요

1. 모니터링 추진 배경

-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큰 규모에 비해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한 지난 2021년 산재 통계를 살펴보면 산재로 인한 사망자 2,080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1% 발생
- 정부에서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사업(안전보건공단)을 전개, 안전시설 확충과 기술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작은 사업장이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접근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과 개선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사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따라서 작은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접근함으로써 산재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고민과 개선대책을 유인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동북권 센터)와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서남권 센터)가 공동으로 의류제조업, 수제화제조업, 디지털산업,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금속가공업 등 5개 업종의 작은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에 의한 모니터링 진행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함
- 상기 5개 업종 선정 이유는
 - 동북권 센터는 봉제업과 수제화제조업이 특화 사업대상 업종이고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산재예방 시범사업 진행과 병행하기 위함이고
 - 서남권 센터의 경우 디지털산업이 특화 사업대상 업종이고 소규모 금속가공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것임

- 특히 의류제조업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해 온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 센터가 위치한 해당 자치구 참여자를 인터뷰함으로써 경험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업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함

2. 목적

- 작은 사업장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각종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대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살펴봄
- 지원대책 정보 습득 경로를 파악하고, 사업장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 홍보방안 모색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원대책이 현장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 제언

3. 모니터링 방법

- 업종별 사업주 인터뷰
- 업종별 노동자 인터뷰
- 전문가 인터뷰

4. 인터뷰 질의요지

- 인터뷰 대상자 일반 현황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알고 있는지?
 - 안다면 알게 된 경로, 신청 여부,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수혜 후 장·단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신청을 안 했다면 이유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
 - 모른다면 지원사업 내용 설명 후 신청 의사가 있는지, 신청할 의사가 없다면 이유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

- ※ 지원 내용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건강 디딤돌 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지원, 안전투자 혁신사업, 직종별 건강진단,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건강관리카드 등
- 지원사업 정보를 사업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추가 질문 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년부터 실시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상황

5. 모니터링 실시 과정

- 사업주 인터뷰 6회(34명), 노동자 인터뷰 5회(25명), 전문가 인터뷰·간담회 3회

번	일시	인터뷰/ 간담회 내용	인원수
1	'22/6/3, 10시	전문가 간담회	23명
2	'22/6/8, 14시	1차 인터뷰,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동대문구)	4명
3	'22/6/15, 14시	2차 인터뷰,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주(관악구)	5명
4	'22/6/30, 15시	전문가 간담회(질문지 확정)	2명
5	'22/7/21, 19시	3차 인터뷰, 수제화제조업 사업주	5명
6	'22/7/28, 19시	4차 인터뷰, 수제화제조업 노동자	7명
7	'22/8/18, 10시	전문가 간담회(IT 노동자 질문지 설계)	4명
8	'22/8/25, 19시	5차 인터뷰, 디지털산업 노동자	7명
9	'22/9/22, 19시	6차 인터뷰, 디지털산업 사업주	6명
10	'22/10/13, 12시	7차 인터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주	3명
11	'22/10/27, 15시	8차 인터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노동자	5명
12	'22/11/3, 19시	9차 인터뷰, 금속가공업 사업주	11명
13	'22/11/10, 19시	10차 인터뷰, 금속가공업 노동자	6명
14	'22/11/28, 14시30분	전문가 인터뷰	5명

※ 본 모니터링은 정부와 지자체의 50인 미만 사업장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와는 관계 없이 현장에서의 정보 접근 경로와 효율적 홍보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인적 자원의 한계에 따라 학술적인 목적이 아닌 정책 입안자 등에게 현장의 시각과 목소리를 전하는 데 의의가 있음

II. 요약 및 함의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 인터뷰에 참여한 사업주, 노동자 모두 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에 관해 모르고 있는 실정
 - 정부나 지자체가 별도로 사업 홍보를 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함에 따라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고 일하는데 몰두해 있는 작은 사업장 사업주, 노동자는 애초에 접근 자체가 힘든 상황

2. 재정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 동종업종 관계자의 입소문이나 공식 협회 등 협의체를 통해 알게 됨
 - 정부 재정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한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사업을 접하게 된 경로는 주로 동종업계 지인들과 협의체를 통한
- 관련 사업의 시설·설비 설치업체의 홍보를 통해 알게 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간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됨
 -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관해 작은 사업장 사업주들이 그 내용을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 사업 신청과 서류 작성을 돕고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보험 영업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가 전 업종에 걸쳐 성행하고 있다고 함

3. 재정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을 때 이용 가능한지

- 내용과 접근성이 좋으면 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하나, 작은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주 또한 일하느라 바쁘거나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자 대부분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함

-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의 이용은 서비스 내용이 좋아 이용하고 싶으나 운영시간과 업무시간이 겹치거나 퇴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등 접근성이 낮아 이용하기 어려움

4.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 협회, 조합 등의 공식 협의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
 - 동종업계 관계자들이 가입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 교류활동이 많은 협의회, 협회, 조합 등의 공식 협의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방법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임
- 본 센터 등 공신력이 있는 중간 지원단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
- 사업주와 교류가 많고 신뢰성이 높은 구청의 협조를 통한 홍보 및 안내
 - 각종 인·허가, 지방세, 사업장 지원 등과 관련해 사업주와 관할지역 구청 담당과는 교류가 많고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또 구청은 사업주의 신뢰도가 높아 사업주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최적의 경로로 평가됨
- 소통이 활발한 동종업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공지를 통한 카드 뉴스 게시
- 사업 관계자가 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추진하고 참여자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방법
- 안전·보건 모범사업장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는 방법
- 이외에도 사업장 이용자가 많은 식당을 통한 홍보, 사업장에 소정의 간식 박스에 간단한 안내자료를 함께 넣어 배포·홍보하는 방법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기됨

5.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책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1) 사업주

- 생산과 밀접한 노후화된 기계·설비에 대한 교체, 수리 지원 또는 이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 예산의 확대
 - 안전시설·설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산 기계·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되길 희망
- 자동화 기계 또는 고가의 장비를 공유하거나 협업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종합 타운 건설
- 산업단지과 같은 사업장 밀집지역에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
- 공동휴게시설에 건강측정기기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 지원
-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담전문가 지원
- 젊은층의 노동인력 수급과 일감이 늘어날 수 있는 지원대책

2) 노동자

- 과로 예방 대책,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의 의무화
- 건강관리 용도의 바우처나 쿠폰 등 지급
-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허리나 무릎 보호대, 자택에서 사용이 가능한 보조치료기구, 물리치료가 가능한 이동차량 지원 등

6.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통해 들은 정도의 지식만 있을 뿐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다는 사실, 구체적인 법적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본인과는 관련 없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

Ⅲ.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제언

■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규모별 맞춤형 안전·보건재정지원대책 필요

- 50인 미만 사업장 내에서도 실제 5인, 10인 미만 사업장은 가족 노동이 많고 사업주 본인조차 노동에 투입되어 있는 영세한 실정
-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지원을 받고자 해도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등 규모별 자부담율을 조정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 필요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확대 적용 필요

- 산재예방기금이 산재보험기금에서 충당되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수혜대상이 돼야 함은 당연하나, 산재보험금조차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인 지원대책 검토 필요
- 특히 노동자가 대부분 객공이라 불리는 특수고용직인 봉제업이나 수제화 제조업 노동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보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 필요

■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현재의 재정지원사업은 특별한 홍보 없이 수요자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을 하는 구조
- 일부 젊은 층을 제외한 작은 사업장 사업주 대부분은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사업에 접근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
- 대부분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동종업계의 입소문과 시설 업체나 보험영업 등 소위 재정지원사업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재정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및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필요

■ 효율적 정보 전달을 위해 정부-자치구-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

- 사업장과 가장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은 자치구와 동종업종 협회·협의회 등의 협의체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재정지지원사업 주체와 자치구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업종별 협의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필요

■ 신청 관련 서류 최소화 또는 서류 대행 서비스 필요

- 다단계 하청구조 중 최하단에 위치하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사무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없고 본인 스스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 이므로 신청 서류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 필요
- 또는 자체적으로 서류 작성을 대행·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서류 작성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대책 필요

■ 건강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필요

- 건강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이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과 겹쳐 이용을 희망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기관의 탄력적 운영시간, 예약제 활성화 등의 대안 마련 필요

■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 필요

- 작은 사업장 사업주나 노동자가 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모르거나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
- 따라서 현장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 필요

Ⅳ. 인터뷰 참여자 일반 현황

1. 전체 사업주 일반 현황

- 인터뷰 참여 : 34명
 - 의류제조업(서울시 추진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사업주 9명
 - 동대문구청 추진 사업주 4명
 - 관악구청 추진 사업주 5명
 - 수제화제조업 사업주 5명
 - 디지털산업 사업주 6명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주 3명
 - 금속가공업 사업주 11명
-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평균 17.4년
- 월 매출액은 평균 65,462,069원
- 현재 고용 중인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9.5명
 - 정규직은 평균 5.8명으로 61%
 - 비정규직은 평균 3.1명으로 33%
 - 유급 가족종사자는 평균 0.3명으로 3%
 - 무급 가족종사자는 평균 0.4명으로 4%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31명 중 11명인 35% 가입, 20명인 65% 미가입



2. 전체 노동자 일반 현황

- 인터뷰 참여 : 25명
 - 수제화제조업 노동자 7명
 - 디지털산업 노동자 7명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노동자 5명
 - 금속가공업 노동자 6명
- 근속년수는 평균 11.7년
- 월 소득은 평균 2,794,348원
- 현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20.2명
-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응답자 25명 중 21명인 84%, 비정규직이 4명(프리랜서 1명 포함)인 16%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25명 중 17명인 68% 가입, 8명인 32% 미가입



V. 업종별 사업주, 노동자 인터뷰

- 50인 미만 사업장 정부 재정지원사업 중심 -

1. 의류제조업

; 서울시 추진,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참여 사업장

■ 의류제조업 사업주 일반 현황 : 인터뷰 참여 9명

-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평균 15.6년
- 월 매출액은 평균 43,955,556원
- 현재 고용 중인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7.3명
 - 정규직은 평균 0.9명으로 12%
 - 비정규직은 평균 5.3명으로 73%
 - 유급 가족종사자는 평균 0.7명으로 9%
 - 무급 가족종사자는 평균 0.4명으로 6%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9명 중 2명인 22% 가입, 7명인 78% 미가입



1) 동대문구청 의류제조업 사업주 인터뷰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알게 된 경로는 주로 동종업계 관계자의 입소문 또는 동종업종 공식 협회나 협의회의 정보 전달을 통한 것으로 나타남

“연합회가 동대문구연합회가 결정된 지 7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가모임 형식을 띄우다가 올 3월부터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살짝 홍보를 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저희도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현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알게 된 건 패션업계 부자재 가게(에) 부자재를 구입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는 2~3년 전에 종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작년에 협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 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노후화된 전기시설 교체 · 정비, 에어컨 등을 교체함으로써 작업 공간을 정리 · 정돈하기 위해서임

“한 자리에서 15년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었는데 3~4번 신청했는데 계속 누락됐다가 작년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하니깐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공장 방문하시는 분도 좋고. 특히 건물주가 좋아하더라고요. 깔끔하니까.”

“한 공간 공장에서만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24년 하다 보니까 그걸 노후된 걸 알면서도 봉제업을 하다 보면 개선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고장이 난 상태로 지원사업까지 기다리고 할 정도로 교체하기가 힘든 그런 그거였는데, 마침 채택이 돼서 저로서는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노후되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했는데...”

- 지원사업을 받은 후 장점으로서는 신청 이유에서와 같이 정리 · 정돈을 통한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불량률 저하 등을 꼽음

“저희는 공사를 사실 이 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공장 정리할 생각을 못 했어요.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기공사 에어컨 보일러 바꾸다 보니까 공장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잖아요.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사용하는 것만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공장 공간이 넓어졌고, 일 하시는 분들이 전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환해지니까 불량률이 적어졌고...”

“... 지하 공장 가보면 이 프레스 먼지가 껴서 이런 환경개선 사업이 선정되지 않는 이상 본인들이 청소하긴 힘들어요. 일에 밀리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틀 삼일동안 공장이 쉬어야 하잖아요. 공사를 하니깐. 완전히 환경을 바꿔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또 음식물 하나 먹더라도 먼지 아닌 좋은 환경에서 섭취도 가능하고..."

- 지원사업의 단점,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으로는 에어컨·전기설비 교체나 개선보다는 직접 생산에 투입되는 노후화된 기계 교체를 원함.
 - 또 일부 자부담, 공사기간 선정의 부자유에 대한 부분도 사업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단점이 있다면 환경개선 사업에 연단기 같은 부분이나 커트기도 들어가야 하고 프레스도 들어가야 하고 칼 이런 걸 해줘야 하는데, 연단기 같은 경우도 30%로 잘랐잖아요. 지원을 어차피 9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걸 나중에 하더라도 그건 우선적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다리다 못 해서 시설을 했는데,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시설 하니까 똑같아 보이네요."

"... 봉제에 쓸 수 있는 미싱 오바르크 삼봉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는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한 대 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서 배제를 시켜 버렸거든요. 사실 공장 사장님은 이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는 이런거는 본인들이 하지, 왜 이걸 지원을 해 달라고 하나? 본인이 살 거 같으면 지원사업을 신청도 안 하겠죠.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시설 하는 분은 선정 되신 분들이 지목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견적서 뽑아 가고 하는데... 저희가 여름에 할 때는 비수기라 여유가 있는데, 여름철에 많이 바쁜 공장이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3일 4일 정도 공장이 스톱되면 오더가 끊어지니까 납품 날짜가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이 기간 때문에 신청 못 하는 공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해주면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에어컨을 7월 며칠날 하니까 6월부터 틀어야 하는데 확정은 됐으니까 사자니 그렇고 (해서) 한 달 반 정도는 더워서 일하는 사람들 아주 애 먹었어요. "

"...시설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게 있으면 그때 하면 좋은데, 일정하게 하니까 한참 일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 노후화된 기계·전기설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노후화 기계 교체가

가장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젖혀 놔을 때 뭐가 잘못됐다든가 하면 확 넘어가 버려요. 특히 많이 다치는 게 미싱 하다 바늘에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미싱사들이 바늘에 찔리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재단사는 칼질하다가 손 이런 게 되게 대부분 재단에서 사고 나는 건 재단기가 안 좋아서 조명 시설이 미비해서 잘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전기 시설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한 번 공장 차리면 그 다음부터 시설을 안 하니까요...”

“(화재사고) 많이 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쉬쉬 하니까 우리 업종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고도 많이 납니다. 공장 내에서도 많이 나지만 열악한 건물이 많다 보니까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것도 겨울 되면 많이 일어나고, 또 이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열악한 공장들이 직원 구하기 힘든데, 거기 가신 분들은 좋은 환경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분이 몰릴 수 밖에 없죠.”

“기계들이 다 한 30~40년 쓰고 있으니까 제품에 기름이 묻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직원들이 기계 바꿔 달라고, 기계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절실합니다. 기기가 제일 절실해요.”

- 에어컨 교체 등 특정한 항목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액을 줄이면 불필요한 개선항목의 과잉 신청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이것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선정되는 기준을 보면 항시 여러 품목을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필요 없는 걸 넣게 되어 있어요.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보다는 금액이 적더라도 만약에 내가 7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작업이 될 거 같은데. 선정이 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 하면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걸 12군데 13군데가 가능하다는 거죠. 금액이 적으니까 우선 구청에서 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걸 얘기하는데, 한 부분만 하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하니까 신청 자체를 포기하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듣기로도 신청을 액수를 맞추려고 에어컨 멀쩡한데도 품목에 넣어서 액수를 맞추다든가 저는 전기 에어컨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거 재단판 들었다 놔다 한다든가 그런 거 설치할 금액이 안 되니까 못 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거 금액이 적더라도 그러면 여러 공장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 봉제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노동자 스스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가 느끼는 사회보험료의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또 주52시간제 시행과 더불어 30인 미만 사업장에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끝나면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

“저희는 직원을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하고 싶죠. 자식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이 분이 저희 공장에 와서 정식 직원이 되면 월급을 받는 게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자식 밑에 의료보험 있던 게 내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금액이 아까우니까 등록시키겠습니다 하면 오늘까지만 일하고 다른 데 갈게요. 본인 자체가 거부를 해요... 그런 거 때문에 등록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공장에 가면 저희도 13명 근무하는데 한 명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오전에 정직원 한 명 뽑으려고 세무사에 전화를 했어요. 220(만원) 책정해서 직원을 하는데 세금 얼마정도 나가냐 하니까 90(만원) 얼마 나간다는 거예요. 한 명 쓰고 90만원이면 차라리 내가 그냥 3.3% 떼어서 그냥. 정직원 3명 작년까지 썼는데 200(만원)이 나가더라고. 세금이 이게 참 정직원 쓰기가 무서워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4대보험을 원청한테 물리던지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 정직원으로 써라 하면 의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주 52시간 좀 있으면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봉제는 무너져요. 봉제 현실을 아시나 몰라도 사장님들은 아침 7시 반 8시에 출근하면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직원분들은 보통 10시간 일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쉬는 공장도 많이 있지만 안 쉬는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만 계산해도 6일이면 60시간 아닙니까? 안 걸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걸리지. 일할 때는 모르죠. 다 형제간 같으니까. 사람이 퇴사하고 나면 노동부부터 갑니다. 근로기준법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등록 자체를 좀 대안을 마련해서 시간을 늘리게 한다든가... 사업주는 월급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객공도 사실 개인사업자인데... 이분이 600(만원) 별면 저 분은 800(만원) 별면 개인 능력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일할 때는 객공 개인사업자고 막상 그만두고 근로자로 변신이 되어버리잖아

요.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고쳐 주셔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의 클린 사업장 조성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서울형 노동안전 보건 우수기업 선정 지원 사업과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사업 등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참석자 모두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게 사실 공고를 못 받아서 그래요... 천만원짜리 저도 처음 듣는데 이거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300만원짜리 받을 바에는 내가 기다렸다가 900만원짜리 천만원짜리 받지, 뭐 하러 300만원짜리 한 번 혜택 받으면 다른 거 일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홍보가 안 돼요. 그리고 구청이나 이런 데도 가서 물어보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면 거기 다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저도 컴퓨터 만질 줄 몰라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뭐가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아까도 클린 사업 무슨 사업 그거는 여기 관련 있는 사람들만 알지. 실제 우리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다른 분들은 거기 있는 거 자체도 몰라요.”

- 사업에 따르는 애로사항으로는 신규 인력 수급문제, 세금 문제, 임가공비는 낮아지고 인건비는 오르는 현실, 저가 외국산 제품 유입, 현실정에 맞지 않는 노동법 등을 꼽음

“다른 사업권도 마찬가지로 현실이겠지만 봉제업은 디자이너는 각 대학교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싱사 시다를 양성하는 학교는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들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50대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70 80 넘으신 어르신도 미싱하고 재단하시는 분 계세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체로 외국인을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잖아요. 사실 외국인은 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말은 잘 알아 먹어요. 내가 필요한 말은 알아 먹지 못해요.”

“임금을 지불할 때 자동이체 시켜주면 서로 투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꼭 현찰 달라고 해요. 현찰로 지불된 건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한 달에 2,000만원 매출을 올렸잖아요. 직원들 하청업체 부자재 운영비 해서 약 1,70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은 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자료가 없다 보니까 2천만원이 고스란히 그냥 소득으로 잡혀 버리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해 달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다른 공장 가죠... 공장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뻘히 법을 어긴다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법을 조금 바꿔주면... 은행 거래 못하는 분. 의료보험 3개월 못 내서 은행 거래 정지당하는 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옛날처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임금 어떻게 지불한 걸로 하면 좋은데..."

"의류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아침 일찍 가서 일하고 저녁에도 일 하면 일찍 끝나면 끝나지만 그래도 10시까지도 끝나고 토요일도 일해야 하고..."

"제가 2000년도에 공장을 할 때는요. 남방 하나에 (임가공비가) 4,500원 했어요. 그리고 미싱사 월급이 120만원 110만원 시다 월급이 70만원 80만원 재단사들이 150만원. 2000년도에, 지금은 미싱사 기본 350(만원) 330(만원), 재단사 400(만원) 시다들 250~280(만원)이거든요. 임가공은 3,800원입니다. 열심히 해서 일하는 분들 월급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임가공(비) 올리려면 외국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분들이 매 아침마다 샘플 들고 다녀요. 이걸 얼마 이걸 얼마. 그러면 아무래도 원단 값, 공임보다 싸니까 얼마나 많이 선호하겠습니까? 전문 공장까지 생겼어요. 500원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미얀마'가 거기 갔다 오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거든요. 더 웃긴 건 라벨도 발전이 돼요. 그 전에는 라벨 두 개를 붙여서 밑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 있어서 여기 와서 라벨만 떼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요.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코리아'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 500원 더 벌잖아요...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여기 관련된 사업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더 피해가 심하죠..."

"능력 좋은 사람은 외국인 많이 고용해서 일하고 불법 체류자 걸리면 벌금 내면 그만이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고 재수 있는 사람은 안 걸려서 몇 년씩 데리고 있고..."

"52시간에 걸리면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공장 가서 똑같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월급에 이 시간대 편하게 일하고 그냥 여가생활을 즐기겠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남들보다 2~3시간씩 더 일하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기회를 박탈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결정권을 본인한테 줘야지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시행된다면 저희 봉제사 다 죽습니다. 가족은 11시 12시까지 일 시켜도 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고요..."

- 2024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 이름 정도만 알 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로 인식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간단간단 요약이라도 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 이런 걸 서로 만나서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 저희가 어려운 점이에요. 전부 다 봉제업체 사장님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이 일찍 끝나도 8시에 끝나요. 7시에 끝나는 공장도 많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8시에 끝나요... 이런 정보도 알아야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2) 관악구청 의류제조업 사업주 인터뷰

- 지원사업을 접하게 된 경로로는 입소문으로 들었거나 협회에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 얘기는 처음에 구청 생활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 됐고. 원래는 협회 말고 개인으로 했었어요. 아는 분들로 이게 인터넷에서 나와 있어서 그렇게 암암리에 아는 사람은 구청에 직접 신청해서 했고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은 협회에서 조달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협회가 조달 받는 게 구청에서 받은 거예요."

- 신청 이유는 동대문구청에서와 같이 대부분 노후화된 전기시설 교체 · 정비, 에어컨 교체 등

"지원 사업 신청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오래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런 자기의 필요한 공장의 이익된 저기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필요한 기계를 신청하는데 원래는 꼭 필요한 건 못했다는 거지. 에어컨이나.. 품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에어컨 그래, 에어컨 오래됐으니까 갈자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 지원사업의 장점으로서는 노후화된 생활기기를 교체해준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겼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지원이 아님에 대한 아쉬움을 포함

"엄청 많죠. 일단 형광등 해준 것도 고맙고, 보일러 그 다음에 노후된 에어컨 해주는 부분 그런 건 엄청 잘 쓰고 있죠. 모든 면에서 쓴 것은 다 잘 쓰고 있어요, 단지 이제 꼭 안 바꾸고 우리가 필요한 걸 못 바꾼 게 있다 뿐이지. 굉장히 도움 되고 있죠."

"공기청정기도 조금은 도움되지만 많이 도움이 되진 않는다 이 말이지"

"보통보다 만족하죠. 매우 만족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기계가 들어와야 하고 만족이고."

- 지원사업의 단점이나 개선점으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를 포함

- 향후 사업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필요한 품목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실제 시설지원을 받더라도 향후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번에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 보면 개선할 점이 무진장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계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봉제에서 필요한 건 미싱이라든가 재단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쓸 데 없는 거, 형광등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야 하는데, 그 품목에서 빠지는 게 무진장 많아요, 그렇죠? 개선할 점이 엄청 많아요. 기계를 실제로 봉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기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거의 한 30%나 할까? 거의 필요 없는 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해서, 이왕 해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야 하지 않을까? 분명히 개선되어야 해요. 그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원할 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부러 밖에서 해야 하고, 여기 품목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기계를 오바르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갖고 있겠지만 다른 특수 기계를 원할 때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면 넘어가는 기계들이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에서 800만원 해준다 하면 800만원 지원을 해준다. 20% 빼고 거기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1500만원 되

는 기계라도 어쨌든 간에 7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계를 해줘야지, 정부에서 해주니까 알았어, 이것도 같아, 저것도 같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 재작년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걸 해달라고 했었어요. 품목이 안 들어갔다고 클린 사업이라서 공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그런 거 청소기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제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공기청정기. 100평인데 20평짜리 갖다 놔 봤자 뭐 합니까? 문 열어 놓고 하는데 이걸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계를 해달라고 하니깐 그 품목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지금 클린 사업이 그런 기계가 포함되어 있나? 그 기계를 사업 하려면 다른 지원, 다른 저기가 있나? 그걸 좀 알아 보고 싶어요, 이걸 바꿀 거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불필요한 것도 걷어 내고 다시 해요. 낭비잖아요. 안 그래요?"

"공짜니까. 어차피 받아야 하니깐 그런 거 필요 없는 걸 받으니까 예산 낭비가 나간다는 거지."

"이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원래 업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 해야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업체가 이런 전기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품목만 해준 거예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사실은 그런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싸게도 하고 원하는 걸 해야 하는데, 먼저 업체를 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품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품목만 하는 거예요. 보일러라든가 형광등 편한 것들 위주로 하니깐 실제로 필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편하게 한 게 아니라 업체를 돈 벌게 해준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봉제 공장에 필요한 것만 필요 없는 건 안 되죠."

"제가 저번에 컴퓨터 하는 걸 둘이 신청했었어. 두 달 동안 신청을 한 거야. 무진장 많아. 뭐 하고 뭐 하고 다 끝났어. 조사가 마지막에 전화가 왔어. 나한테, 컴퓨터 해주는 게 있었거든. 나한테 컴퓨터 꼭 필요하냐고 해? 꼭 필요하다 써야 하는데 봉제에 꼭 컴퓨터가 필요하겠습니까? 있으면 하면 좋죠. 자료 하는 건 좋죠. 공장에서 꼭 필요하진 않다 했지. 내가 샀어. 두 달 동안 조사를 맨날 하고 그걸 왜 파악하냐고? 거기에 필요하다 써 놔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게, 두 달 동안 기다렸어."

"그런 걸 해주면 좋겠다는 거지. 품목을 정해 놓고 하니깐 우리는 그 업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거 오래 됐어. 이거 해준다고 하니깐 이걸로 같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기계 업체 형광등 업체 보일러 업체 나눠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우리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다양성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꼭 바꿔야 하는 게 순서가 1 2 3 4 ~10번까지 있다면 품목의 다양성을 준다면 급한 거부터 바꾸겠다 이거예요."

"덕트 시설을 해주는 건 고맙죠. 내 돈 안 들이고 해주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그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 약간씩 사라지는 시기 아닙니까? 어느 건물주는 원위치 해놓고 가세요 한다 말아야. 그러면 그거까지 서울시에서 해주셔야지. 시설 해줬으니까."

"계약기간이 만료 됐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집세를 올려주세요 하는데 적당히 는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생각 할 때 터무니 없이 올라 가면 이사 갈 수 밖에 없어. 그래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원위치 해놓고 가세요 하면 그런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덕트 시설까지는 우리가 제 생각입니다. 여기 이사님이니 부회장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나는 불필요한 내용이다."

"클린 사업이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자동화 되면 더 안전한 거잖아."

- 정부의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은 거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이유로는 사업주 본인들도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찾아볼 시간이 없거나 찾아보더라도 공고 시기를 미리 알 수 없어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의 그렇죠. 이번에 지원 이것도 지원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몰라서. 다 아는 게 아니예요. 이것도. 우리가 했나 안 했나 전화 해보지. 한 번도 안 한 사람 태반이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이런 정보를 모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손수 자기 손으로 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접하지 못해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컴퓨터를 많이 쳐서 공문이 올라온 걸 보고 기대를 선정 받은 업체는 있긴 있어요. 받고 나서 알게 될 때는 공소시효가 끝난 거야. 항상 그런 시스템이 되어 버리니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일하는 제조하는 사람이 이거 앉아서 이것만 열람하고 중소기업 벤처니 열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몇 개 업체

이런 작업장을 만들어 놓으면 기계를 지원 해서 5천만원이면 5천 만원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때는 공소 시효가 끝났어”

“지원 사업이 해마다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내가 계속 뒤져봐도 놓치고 안 떠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뒤져 봤습니다. 안 떠 있어. 운 좋게 내가 뒤져 봤을 때 떠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 안 떠 있다고, 맨날 그렇다고 그것만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는 날짜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날짜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뒤져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공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 아무런 그리고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날짜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날짜를 거의 몰라. 알기 힘들어.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경험해보셨는지 몰라도. 나 올해도 찾아 봤어요. 그런데 안 돼. 안 떠 있으니까 어디에서 떠 있는지 어느 창에 떠 있는지 이거 찾기도 힘들어. 그런 상태에서 저기를 못 받는 거죠.”

“본인이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일도 바쁘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못 써서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안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 일대일로 잡고 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 해주면 가능한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만 주고 이거 해봐 하면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용어 같은 걸 우리가 빨리 이해 할 수 없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접근을 안 했던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소화 능력이 부족하다. 내 생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전문적인 사람이 이걸 이해를 충분히 해서 쉽게 조금 풀이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생각해요.”

“잘 알지도 못 하지만 이게 와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려면 절차상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봉제는 시간 싸움인데, 이걸 해서 뭐 와라 뭐 해라 수없이 해서 하다 보면 그런 거가 있어서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똑똑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서 해야 하는데 막말로..”

“시간이고 서류를 작성 하려면 이해력이 부족하니 대필이라도 해주면 많은 사용자가 있을 건데, 그걸 못해서..”

- 지원사업을 알게 되더라도 이용이 쉽지 않은 이유로는 용어 등이 생소해 이해가 쉽지 않은 점과 절차상의 어려움, 또 관련 사업부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점을 꼽음

"잘 알지도 못 하지만 이게 와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려면 절차상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봉제는 시간 싸움인데, 이걸 해서 뭐 와라 뭐 해라 수없이 해서 하다 보면 그런 거가 있어서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똑똑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서 해야 하는데 막말로.."

"이걸 봐도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찾기 힘들니까."

"시간이고 서류를 작성 하려면 이해력이 부족하니 대필이라도 해주면 많은 사용자가 있을 건데, 그걸 못해서.."

"이걸 봐도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찾기 힘들니까."

"전화 해서 뭘 하느냐 뭐 하느냐 물어 봤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잖아. 통화하기가 있지. 진짜 내가 로또에 맞으려면 통화가 돼. 로또에 안 맞는 순간 통화 하기가 힘들어."

"뭐 하나 물어 보려면 전화통화 하기가 여러 사람이 전화 하니까 그러겠지만 통화 하기 진짜 힘들어요. "

- 사업주가 바라는 업종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는 저렴한 공장 부지를 공장과 함께 임대 지원해주는 것과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꼭 필요한 기계를 지원(공동사용 포함)하는 방법 등

"큰 통으로 공장을 지원한다면 경기도 싼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우리한테 싸게 임대하는 게, 일본만 해도 지방으로 출퇴근을 해요. 제조업 살리려고. 건물을 나라에서 지어서 그런 사업을 해줘야 해. 제조업은.."

"우리 업계도 사실 공동으로 꼭 필요한 기계는 있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좋아요. 그런 거를 일을 보는 사람이 직접 우리 같은 사람하고 상담을 해서 우리는 여기 10명 있는데, 우리 충분히 한다면 우리 큰 도움을 받고 살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면 그 일을 우리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전문가 필요하다 하면 가능한 거예요."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운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그거 다 하면 공장 문 닫아야 하니까 돈 다 나가서. 진짜요. 옛날에는 봉제가 세금이 덜 났어요. 지금은 에너리가 없어. 언젠가 잘못해서 종합소득세 1700까지 났어. 뭐 하고 뭐 하고 자기들 뭐 하고 하니까 성질 나서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그게 그것만 올라가느냐? 의료보험 국민연금 모든 게 다 올라서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

요. 뭐 하고 뭐하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없는데 내는 거야. 그런 경우가 무지 않아요. 그렇죠? 가라로 끊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게 폐단이야. 봉제 계통의 지금 나와서 얘기하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해보면 그래요. (4대보험) 해줄 거 다 해주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거 법이라는 거 보완점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봉제 공장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고 주면 좋지만 현재 법 상으로 현재 능력으로 줄 사항이 안 돼"

"현장 원리를 모르고 그냥 수익성 많은 대기업의 기준을 두고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근로자 분들도 고생도 많이 하고 줄 건 주고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임을 받아서 기계를 찍어내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해서 금액을 마련해서 월급을 주고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은 열악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정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대기업 기준에 맞춰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찌그러진다 이거지 힘들다 이거야."

- 중대재해처벌법은 알고 있는 사업주가 더 많았으나 봉제업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김

"그런데 봉제 공장에는 사실 그럴 만한 게 크게 없어서. 그냥."

"사실은 우리 계통은 위험도가 없다 보니까 대표자님들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가져 본 적 없어"

"우리 저기 한 게 없고 저기 같은 경우에 건설회사 이런 데가 큰 사고가 나는데 사업주가 벌금만 내고 못 받으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대기업 이런 데나 그런 거지."

"전혀 없어, 불 나지 않을 바에야."

"생명에 위협 받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늘이 정해주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땐 처벌 받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하고 환경이 사고가 어두워서 사고가 난다 뭐 한다. 사고가 우리 계통에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요. 기껏 해 봐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단하면서 칼로 손가락을 베이는 경우, 미싱 하면서 찍히는 경우 그 이외에 생명의 지장 되는 그런 저기는 없죠. 단 한 가지 예전에는 보일러가 터져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게 이런 특이한 케이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일러 같은 경우도 잘 나와 있어서 그런 사고가 거의 없죠. 안전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한테 복지를 준다 하는 건 조금 내 생각에는 안 맞는다. 누구 말마따나 철판 자르

고 손목이 나간다가 발목이 나간다가 이런 기계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수제화제조업

1) 사업주 인터뷰

■ 수제화제조업 사업주 일반현황 : 인터뷰 참여 5명

-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평균 17.4년
- 월 매출액은 평균 52,000,000원
- 현재 고용 중인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10.2명
 - 정규직은 평균 0.6명으로 6%
 - 비정규직은 평균 8.4명으로 82%
 - 유급 가족종사자는 평균 0.6명으로 6%
 - 무급 가족종사자는 평균 0.6명으로 6%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5명 중 2명인 40% 가입, 3명인 60% 미가입

직원 고용형태(수제화제조업)



산재보험 가입여부(수제화제조업)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 수제화제조업의 어려운 현실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많을수록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사업 참여가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계·설비 교체가 용이한 공장을 이전할 때 등 필요 시기에는 자부담이 커도 상관 없이 지원을 받고자 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보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자기 부담금을 들이고 해야 하니까. 지금 있는 것도 노후되긴 했지만 쓸 수는 있잖아요. 굳이 불경기에 우리 돈 들어가면서 100만원이 됐든 우리 돈 들어가면서 그걸 거기다 투자한다는 건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힘들죠.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해보자 이럴 때는 자부담이 들어도 하겠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진짜 10%만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20% 하라고 하면 진짜 안 하죠.”

“저희는 작업 환경이 사실은 가죽 냄새 본드 냄새. 가죽하고 본드는 냄새가 계속 나요. 저는 이 사업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공장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니까 만성이 되니까 괜찮은데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처음부터 여기 공기정화는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머리 속에 있었어요.”

“...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자부담이 들어도 하잖아요. 그때는 잘 안 돼요. 이게 기간이 있어서 그때만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신청하려고 전화 해봤어요. 소진되고 없다고... 공장 이전하게 돼서 다른 거 설치할 게 있어서 이왕이면 바꾸고 자부담 들여서 하자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자부담 들여서 설치하고 이거가 힘들어요. 사실은.”

“지원 사업이 상당히 좋긴 한데, 저희 소상공인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안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지원이에요. 50인이면 큰 사업체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소기업이라고 봐야 해. 우리는 많아야 20명이에요. 20명도 큰 거예요. 30명은 다 갔잖아요. 성남이나 광주로 갔어요.”

- 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대한 접근 경로가 관련 시설·설비 업체의 팩스 홍보나 중간 브로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낮은 공신력과 서류 작업의 부담감 등이 신청을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함

“팩스로 받는 건 잘 못 믿어요. 안전공단이다 여기가 어디다 해도 못 믿어. 하도 사기가 많으니까.”

“이걸 SBA(서울산업진흥원)에서 했을 때도 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협조해 달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기도 좋고, 누가 물어봐도 거기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먼저 의심이 가서 못 해요.”

“저도 안전공단인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에어컨이라고 왔는데 보고 말죠. 믿음이 안 가니까 이것들 누구 사기 치려고 해.”

“... (수신된 문자나 팩스에) 산업안전 이렇게 써있긴 한데, 그게 산업안전공단 이런 데는

아니고 일반 판매 업체나 중간 브로커”

“제가 몇 번 그런 거 와서 전화를 해봤어요. 정말 해주냐? 어떤 기계까지 해주냐? 물어 봤더니 자기들은 그걸 판매하는 업체라서 서류는 이쪽에서 꾸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계속 해왔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거 같아요. 많이 거품을 빼면 좋겠어요. 써서 내고 또 가서 면접받고 또 하고 브로커 안 낄 수가 없어. 서류 만들어 줘야지. 에어컨이 5개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5개 업체가 어딘지. 그런 걸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 하면 브로커가 항상 꺼서 자기가 다 목록을 정해서 사람을 모아서 가잖아요. 브로커가 다 해 먹고 우리는 좋은 기계를 못 받고 이런 거. 그거까지 여기서 선정해서 해주면 믿음이 가는데, 그거 받아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청정기 받았는데 필터가 30만원이라고. 안 받는다고 처박아 놨다고. 센터장님이 공기청정기 사주면 뭐 하냐고? 다 창고 갖다 왔다고... 아니 리필 하는데 30만원인데 어떻게 쓰냐고?”

※ 참여자 전원이 클린사업장 조성 이외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다고 답해 이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사업을 일일이 설명한 후 수용 가능 여부, 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의 인터뷰 내용임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과 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매우 높아 이용하고자 해도 업무시간에는 일하느라 이용할 수 없고 퇴근 후나 휴일 등에는 센터가 문을 닫아 이용하기 힘든 상황

“생긴 지가 1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이. 거기 맞춰야 한대요. 우리는 끝나고 가면 문이 닫혔다. 사용 할 수 없다. 점심시간에 가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이거 거기구나.”

“몰라서 이용 못 한 거죠.”

“일하다 결리고 허리 아프고. 우리 다 환자잖아. 허리 아프잖아. 여기는 힘들죠. 교통이 불편해서. 병원이 많아도 안 가는데”

“공장에 들어가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시간 내기가 힘들죠.”

○ 수제화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가장 지원을 원하는 부분은 고

가의 자동화 기계, 또는 고가의 장비 공유나 협업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수제화제조업 종합 타운 건설

“우리보다 더 큰 업체들은 다 외곽으로 갔어요. 성남이나 광주로 빠졌고 저희같이 어중간한 업체 있잖아요... 5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죠.”

“... 저희가 제일 원하는 걸 해보라고 한다면 지산(지식산업센터)을 하나 지어서 우리가 어차피 월세 내는 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있다면 공동으로 해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완전히 저희가 바라는 로망이에요... 그러면 다른 외국에서도 우리 구두 사업을 보려면 올 수 있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바람입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부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주겠다 다들 그렇게 하셨는데, 다 무산됐어요. 사실은 성수동이 몇 년 사이에 5~6년 사이에 엄청나게 뛰었어요. 우리 같은 소공인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 카페가 들어오고 그래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테크노타운을 하나 만들어 달라. 다 집중시키고 어차피 월세는 우리가 내겠다. 건물만 해줘라 그런 안도 많이 올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부가 안전보건 관련)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우리는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줄 걸 차라리 크게 풀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생을 하면서 살아남으면서 이걸 해줘야 하는데 못 살아남고 다들 폐업했잖아요. 지금 폐업한 업체들 어마어마해요. 다 살아 있다면 쟁쟁하겠죠. 그런 상황이니깐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죽을 힘을 다하지만 우리 자력으로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협력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모여 있잖아요. A라는 업체가 디자인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집에서 이걸 못 해요. 이 집에서 의뢰를 하고 싶어. 그건 못 해줘 하면 다른 집에 보내면 되는데, 우리는 현재 그게 안 되잖아요.”

“... 소상공인이 다 들어가서 봉제하고 같이 들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공구상도 구로동 갈 때 테크노타운 만들어서 갔잖아요. 한 군데로 집결시켜 놓고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거 같아요. 거기다가 스마트 사업을 지원해주고 기계도 신형으로 깔고 공동체로 운영할 수 있는 기계를 중앙에서 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지 무조건 이거 저거 뭐 해주겠다 하면 그림의 떡이에요.”

- 봉제업과 같이 직원이 객공이라 불리는 특수고용직노동자가 대부분임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업장은 공단의 재

정지원사업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음

※ 이는 안전보건공단이 산재예방기금으로 운영되고, 산재예방기금은 산재보험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이내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므로 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전제조건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임

"...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3.3% 직원이라서 안 된다는 거죠. 해 봤자 직원들 한두 명, 두세 명 그런 거지."

"봉제도 그렇죠. 옛날부터 객공이었어요. 훨씬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분들이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연세가 들어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정식 지원으로 월급 받고 싶은데 하던 게 틀이 잡혀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제도인데 진짜 합리적인 거 같아요."

"이것도 그림의 떡이긴 하지만 우리가 받아먹을 수도 없고..."

-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그건 돈 낭비가 되고 저희가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10년 전부터 느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이 부서에서 해주고 저 부서에서 해주고 이런 건 없애라는 거지. 하나로 뭉쳐서 해주고 하면 그렇게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

"똑 같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죠. 성동구청에서 하죠. 산업진흥공단에서 하죠. 다 해요. 똑 같은 걸. 왜 그러냐고? 여기서도 하는데요."

"그걸 제대로 해주면 그래야지 한 군데라도 제대로 살리지."

"지원이 꽤 많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돈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필요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기계를, 방향을 틀어서 미싱이나 구두를 제조할 수 있는 많이 발전된 기계를 넣어주는 게 제일인 거 같아요. 여기 저기서 막 환경 개선한다고 주거든요. 너무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 주고 미싱이나 이런 거 주라고 해."

- 가장 효과적인 관련 사업 접근 및 홍보 경로로는 본 센터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해당 구청 지역경제

과를 꼽음

“(본 센터에서) 우리 협회장님한테 문자나 팩스 해서 보내주시면 그건 믿을 수 있는데...”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해서 나오면 신뢰를 하죠.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소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문자가 오죠.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보내주시면. 아는 전화번호는 보내주시고 지역경제과랑 교류하시고 그게 제일 빨라요.”

“수제화는 담당이 있어요. 서울 시청도 있어요.”

“지역경제과가 성동구청에 있는 게 아니고 성수동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장 연락처를) 협회도 다 갖고 있는데 성동구청에 담당이 있다니까. 수제화 담당. 그 사람 다 갖고 있어요.”

-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법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본인들과는 관련 없는 일로 여기고 있는 상태

“결국 있는 기술자도 못 쓰게 만드는 거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3%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잖아요.”

“이걸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잘못 된 거야. 그러면 공장 아무도 안 해. 구멍가게나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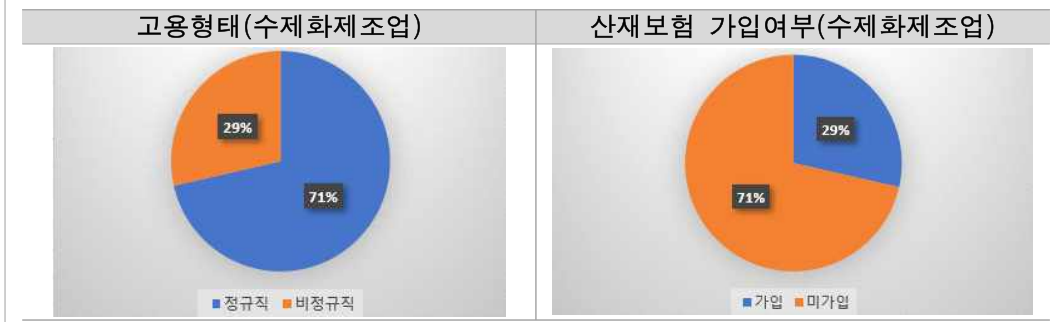
“이런 법은 위험한 업종 건설이나 큰 기계 다루거나 기계 붙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하는 건 괜찮을 거 같은데, 이런 사무실이나 우리 공장은 안 통하는 거 같은데.”

2) 노동자 인터뷰

■ 수제화제조업 노동자 일반 현황 : 인터뷰 참여 7명

- 근속년수는 평균 26.1년
- 월 소득은 평균 2,428,571원
- 현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8.8명
-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응답자 7명 중 5명인 71%, 비정규직이 2명인 29%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7명 중 2명인 29% 가입, 5명인 71% 미가입



○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사업 관련 일부 제화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만 건강 디딤돌 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막연히 알고 있을 뿐 이외에는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음

“저희들은 이런 거 있다는 걸 업주가 알아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클린시스템에다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 근무환경 개선 그런 프로그램 있는데, 맞죠? (노조) 지부장이 와서 공기 그거 청정기 설치하고, 그거하고 여러 가지 설치한다고 했어요.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안 넣은지는 모르겠어요. 뭘 바꾼다 하면 제조업체가 다 그렇잖아요. 귀찮아 하고.”

“업주들이 귀찮아해요 그걸요... 계산하는 걸 싫어하고.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 편리를 봐 줘서 좋은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업주들이 막아 버리니까.”

※ 이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사업,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일부를 일일이 설명한 후 수용 가능 여부, 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뷰 내용임

○ 전단기의 경우 주로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달려있으나, 작업상 불편함을 이유로 버튼 하나를 고의로 고정시키고 한 손으로만 작동시켜 손가락 절단사고가 계속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남

- 사업주는 비용 부담의 이유로 개선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양수 조작식 안전장치를 대부분 사용하나, 작업자가 버튼 하나를 고정시켜

안전장치의 성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음

- 그라인더의 경우 톱날 교체 시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떼어내고 작업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단기, 그라인더로 인한 손가락 절단사고 등 큰 사고는 드물게 발생하는 한편 작은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

“기계 안전사고 많이 나오. 절단 사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안전장치 없이 다들 쓴다 말이에요. 그런 데서. (안전장치가) 있긴 있는데. 양손으로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한 손만 쓰고 넣었다 뺐다 하고. 두 손 해서 누르면 문제가 없는데, 불편하거든요. 쓰는 사람이 그렇게 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전장치가 없어요. 이 사람 손이 들어가면 차단되게 해야 하는데. 손가락 4개 잘렸어. 손이 들어가서.”

“꺾을 때 그대로 있는 게 있고, 고면 내려가는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뭐가 붙었다고 고고 손 집어 넣었다가. 우리 친구도 하나 잘렸는데 그런 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죠.”

“그것(그라인더)도 많이 사고 나죠. 손 넣기도 하고 이 앞전에 사고 나고, 톱날같은 걸로 샌들 하고 할 때 톱날 끼는데 이게 잘못하면 장갑 끼고 해서 들어가서 이런 데가 잘리는 거지. 그게 원래 보호 커버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안 만들어주고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비용 발생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안전해야 하는데 합리적으로 돌아가요. 평상적으로. 신발 업계는.”

“안 쓸 때 덮어놔도 일하는 사람이 쓰니까. 톱날 갈아 끼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조금이라도 월급이 나오고 하면 되는데, 빨리 하려면 제대로 빨리 돌아가줘야 하는데 이거 때문에 안 되면 빼는 거지. 불편하니까. 일하는 사람이 떼어 버리는 거예요.”

“일하면서 뺐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다시 붙이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빨리 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5만원 준다 이거야. 5만원을 계속 주면 되는데 조금 하면 5만원 못 받아요. 2만원 받고 하니까 시간이 돈인데, 저런 거 때문에 늦다 이거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치는 거지.”

“그게 첫째는 부주의해서 일어난다고. 두 번째는 사고 났잖아요. 보상 문제에서 업주가 최대한 노력해서 해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일하는 사람은 하다 보면

누가 될 해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도 때로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고. 자기가 조심해야 해요. 그 다음 다쳤을 때 보상 문제. 그런 게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냥 불편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거 같아요. 그러다 한 번 다쳐서 신경 나가고 했거든요.”

“(안전장치가 달린 좋은 기계가) 나와도 안 쓰는 거 같아요. 가격대가 비싸니까 업주는 최저가로.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게 미흡하죠.”

“조금 조금 다치는 사람은 많은데 큰 거 이런 톱니바퀴 칼날에 다치고 프레스에 이런 건 많지 않아요.”

“여화(여성 신발)가 좀 다치는 게 많지. 남화(남성 신발)는 기계를 톱날 복잡한 걸 안 쓰니까.”

- 진단기, 그라인더 등으로 인해 산재가 발생해도 고용 불안 등 사업주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걱정해서, 특수고용직노동자(객공)로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오인해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내가 아는 사람도 그 사람 쇠톱에 나갔는데, 손가락이 나갔어요. 지금도 손가락이 절여서 지금도 테이프 감고 일한다고. 그 사람도 자기가 치료비 다 하고 업주한테 1원 한 푼 안 해줘요. 내가 그랬지. 왜 그러냐 했더니. 나 같으면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려면 신고해서 치료를 받고 산재 처리하고 받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 바보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야. 자기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데, 자기가 감수하는 거야. 직장 다니기 위해서, 바보 같은 짓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산재 안 들었다 하더라도 병원 가서 산재 처리해 달라고 하면 해주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업주한테 가서 산재보험 하는 걸 알아 보고”

“객공도 해줘요?”

“(객공도) 해줘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 수제화 제조업 노동자는 현재 봉제업과 같이 작업자 대다수가 고연령층임에 따라 건강 관련 사업에 관심은 많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일반건강검진조차 제때 받지 않고 있는 실정
 - 특히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특수건강검진은 참석자

모두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건강검진) 받아본 적 없어요.”

“제화 업계는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휘발성 물질이 많고 가족 자체가 그렇게 가공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파야 병원 가지 안 아프면 안 가잖아요.”

“월급제는 모르겠는데, 하나라도 더 할 욕심이라서 조금 아파도 참고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갑피 부분이거든요. 미싱을 박아서 위에 걸 하는데 거의 끝나면 우리 말로 시야기를 한다 하거든요. 마무리 작업할 때 그때 프레온을 해요. 닦아 주니까.”

“이 친구는 직접 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족 자체에도 발암물질 성분 있어요.”

“가족 냄새도 그렇고 안에 작업할 때. 우리는 직접 닦으니까.”

“그게 발암물질이 있어요.”

“가족 공장 가면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 염색까지 다 해요.”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참석자 모두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1인의 경우도 실제 교육은 받지 않고 인원 체크 정도만으로 교육 관련 근거만 남긴 것으로 보임

- 이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그날 그날 일감을 본인이 얼마만큼 작업하느냐에 따라 일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이라는 인식으로 교육 시간 자체를 사업장에서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됨

“다 모이라고 하면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같이 앉아서 설명해주고 그런 식이죠. 지금은 저긴데, 전에는 40~50명 정도, 5인 미만일 때도 왔었어요.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한 거 같은데. 와서 인원 체크 하고 그런 거 해서 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두 번 있던 거 같아요.”

“한 마디로 근로자 실태 조사로 하는 거지... 스티커 같은 것도 주고 가고 어디다 붙이세요 해주고 가고.”

“일하고 있는 사람 부르면 안 온다니깐요.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따로 있고 이래서 하면 되는데, 점심시간도 없다니깐요. 앉은 자리에서 밥 먹고 일하고. 본인이 빨리 하고 가야 하니까.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이) 대중 없어요. 일이 없으면 오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일이 많으면 18 시간씩 일할 때도 있고.”

“14시간 12시간 이상은 하는 거 같아요. 14~15시간 하는 거죠. 아침 7시에 나오면 9시 정도까지는 해야 하니까. 12~14시간 정도.”

“젊은 사람들 배우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터에서 하루 종일 있어요. 한 10시간 일하더라고. 자기 일이니까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서 그런 업체 하나 가서 기기 수리해주고 했는데 상황이 미약해요. 어떻게 해요? 시스템이 그런데. 월급제 몇 안 되잖아요. 저야 월급제로 일하고 있어서 지장이 없는데.”

- 수제화 제조업은 봉제업과 함께 신규 노동자 유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현재의 고령층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으로 젊은층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특히 ‘장인수당’을 국가나 관련 협회 등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기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자부심에 도움이 되고, 신규 인력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방법이 제안됨
 - 그나마 젊은층이 소수 유입되고 있는 경우는 본인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또는 기술을 배워 스스로 오너가 되고자 하는 경우임

“그래야(월급제로 해야) 젊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배워서 일단 배우는 사람들은 지금 별이가 안 되잖아요. 10년 있으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10년도 안 가요. 없어요. 배우는 사람이.”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일주일만 일해도 500원짜리 종이돈이 이만큼씩 들어왔어요. 웬만한 월급 한 달 치를 일주일이면 벌었어요... 지금은 한 달 내 해 봐야 200만원도 못 벌어요. 누가 배우겠어요? 시급이 15,000원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저도 한 40년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화협회라든가 협회에서 나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장인수당을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버는 건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해주면 150만 벌어도 250이 되잖아요. 이게 앞으로 좀 더 장인 정신을 갖고 할 수도 있고”

“63년생이에요. 계속 젊은 애들하고 경쟁을 하면 못 이겨요. 체력도 딸리고 별이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자면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종합복지센터를 해서 장인들

을 50만원 100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하면 이게 맥이 끊기지 않고 할 수도 있다.”

“국회에 어떻게 똑똑한 사람을 보내서 장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처음부터 크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렇게만 된다면 선배들이 잘 살고 하면 후배들도 보고 저렇게 생활할 수 있네. 나도 배워서 해볼까?...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리기 위해서는 장인을 100만원 줄 게 아니라 현재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서 배우게끔 해야지.”

“구청에 나가서 뭐 하고 명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돈 벌지. 한두 사람. 나머지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정책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지. 전체를 살려야 하는데 일부분만 하고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해요. 나이 먹어서 다 하나 하나 떠나. 날개 달고 올라가는 양반 있고, 노가다 하는 데로 가버리는 양반 있고,”

“배워서 우리처럼 얼마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안 하죠 절대. 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배워서 차려서 한 거예요.”

“... 애초에 젊은 사람들 일을 가르쳐서 써야겠다 그런 마인드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가르치는 시간도 돈이고 한데 옆에서 가르치는 시간도 돈 벌 시간에 시간을 쏟아야 하잖아요. 배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젊은층 의견) 아무래도 세대가 너무 다르니까 받아들이긴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환경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 9-6으로 정해져 있고 주5일제 연차 월차 다 대우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여기 오는 순간 그런 건 없는 거니까 갑자기 80년대로 돌아가는, 거기서부터 이제 세대가 안 맞고, 아예 시대도 안 맞는 환경에서 일하는 걸 거부하죠. 그거부터 거부하고, 일하는 환경도 좀 이게 그냥 1년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만 조금 달라도 거기서 배우고 해야 하니까 자꾸 머리 써야 하니까 길게 가야 하는데 보통 요즘 세대는 빨리 빨리 교육을 빨리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길게 보는 산업에는 점점 안 하려고 하죠. 돈도 안 되니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도 있고 이러니까 보장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해도 나중에 되면 뭐 보장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자기의 미래가 딱 정해져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진입하기 힘들고, 배워 봤자 이거 취미 생활이라고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입하려면 많이 바뀌었죠. 사업장 가치관이 젊은 세대들을 안 따라주니까 저만 해도 사장님한테 고용할 때 연차는 필요 없고 월차만 달라고 했는데, 월차를 안 쓰면 월차를 월급에 포함시켜 줘야 하잖아요. 그런 게 없고, 월차 쓰는 거조차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 환경에서 젊은 세대가 일을 하겠어요?”

“어느 공장을 가도 임금은 기술이 좋다고 높지 않아요. 임금은 비슷한데, 제가 A라는 공장에서 패턴을 해서 신발 나온 게 라인이 좋으면 시장에서 보고 여기 실장 괜찮다 해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10~20만원 올려서 줄 테니까 와라 이런 건 있을 순 있는데,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없고, 공장도 하나씩 없어져요.”
 “네. 부속 업체도 그렇고 기계 업체 협력 업체 하나씩 하나씩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장이 없어지는 거죠.”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나 경고표시 부착도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법적 내용이나 안전보건 관련 지원사업을 어떤 경로로 홍보하면 노동자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 핸드폰 메시지, 제화노조 전단지, 협회를 통한 사업주 교육 등을 꼽음

“대중교통이 제일 안전하고 보기 좋고 하지 않나요? 거기다 부착하면 장시간 타고 다니다 보면 보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핸드폰 메시지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보내면 보긴 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곳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보면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바일도 많이 보니까.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제화노조는 사업장 다 알아요. 성동 사업장은 다 알아서 그 사람들은 전단지를 돌릴 수도 있고, 빠르지. 다 사업장을 아니까.”

“협회 등록된 사업주들을 한 번에 교육시키는 게 제일 빠를 거 같아요. 협회나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각 협회에 미팅해서 이렇게 사업주들을 소환시켜서. 몰라요. 어디 붙여 놓고 해도 그냥 흘러 보지 제대로 모른다 말이에요. 알려줘도 안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그나마 좀 생각이라도 들 거 같아요. 저희 사장님만 봐도.”

3. 디지털산업

1) 사업주 인터뷰

■ 디지털산업 사업주 일반현황 : 인터뷰 참여 5명

-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평균 11.4년
- 월 매출액은 평균 156,000,000원
- 현재 고용 중인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10.4명
 - 정규직은 평균 8명으로 77%
 - 비정규직은 평균 2.4명으로 23%
 - 유급, 무급 가족종사자는 0%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5명 중 3명인 60% 가입, 2명인 40% 미가입



※ IT업종(디지털산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의 연계성이 낮은 실정으로 과로와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질문지를 적용함.

- 사업주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사유를 알 수 없는 경력 직원의 이직,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체계와 복지로 인한 직원 채용과 근속의 문제, 정해진 기간에 다양한 일을 처리해야하는 어려움, 경력직원 채용시 단기간에 업무능력 확인이 쉽지 않은 점 등인 것으로 나타남

"저희 기업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이 직원이 들어와서 2년 3년 키웠어요. 직원들이 애기도 안 하고 적당히 연차 쓰고 매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어떤 불평, 불만으로 이직했는지)을 저희 회사 직원이 상담을 하면 잘 상담을 잘 안 해요. 말 안 하고 자기가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의 가장 애환이. 그러면 사람을 키웠는데, 개발자가 됐든 핵심 인력이 됐든 영

업이 됐든 이 친구들이 다 들고 나갑니다. 기술 유출되죠. 내가 키워놓은 사람 이제 써먹을 때 되니까 다른 데 가고 있고 이런 게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저해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직원은 오래 다니긴 하는데요. 그런 인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1년 지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으로 보면 그때쯤 되어야 왜 그만 뒀는지 알아요. 연봉의 문제인지, 직장 상사와 갈등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직무 스트레스가 있어서 문제인지, 자기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고, 퇴사 시점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미 면접을 다 보고 다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서 사표 쓰고 그리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늦은 거죠. 상담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실제로 직원을 구했을 때 얼마만큼 근무를 계속 이어가느냐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급여체계가 한계가 있잖아요. 대기업을 따라 갈 수 없고. 복지도 따라갈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많은 거죠."

"결국은 어차피 경쟁을 하는데, 정당한 시간에 정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계약이 되면 좋은데 정당한 그걸 내보내서 2/3 이런 식으로 하거든. 결국은 IT는 그렇거든요. 인건비 장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일만큼은 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에 10가지를 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에 12~15가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없죠. 그렇다고 사람 하나 데리고 오면 애도 실력이 검증이 안 돼. 한 번씩 실력 검증 할 때까지 3개월 걸려. 뭐 하다 보면 석달 지나가. 그때 바꾸기는 늦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대기업을 물량 공급을 이겨낼 수 없어."

"제도적으로 다 공감 되는 거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사실 자금이예요. IT 쪽은 월급 매달 나가고. 저희 쪽은 착수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분기에 한 번 받게 되는데. 사업이 커지면 운영 인력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금력도 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금 지급 하는 데도 있지만 어음 지급 하는 데도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면 비용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직원의 최대 복지는 정상적인 월급 지급 당연한 거지만 고용주는 사실 매달 월급 주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 사업주가 바라보는 IT업계의 과로문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재 주 52시간제가 정착이 되었고,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야근이나 휴일 출근은 직원보다 사업주가 직접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대표의 건강관리 필요성을 주장함

"많이 줄었죠. 고객사들이 52시간 하는데 저희도 같이 동반해서.."

"(단기과중작업계약)그렇게 계약을 안 하죠. 주말에 누가 나와서 일을 해요? 제가 저는(사업주) 토요일마다 출근해요. 일요일도 출근해요. 저는 나가지만 직원들은 출근 안 시키죠."

"저도 저만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 칼퇴근은 저분들은 쉬고 사장만 일을 해요"

"인원을 많이 쓰거나 야간 근무 하거나 이런 건 꿈도 못 꿩요. 큰 일 납니다."

"저는 중소기업 직원이 대기업 직원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눈치 안 봐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노동강도도 솔직히 낮아요. 대기업은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주말에도 나와서 일 하더라고요. 연구소 같은 데 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6시면 칼퇴근해요. 연차 쓰는 거 눈치 보는 것도 없고. 국가의 제도가 좋아지니까 많은 복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 같긴 한데. 주 52시간이 아닌 주 40시간 근무하고 놀고 다 좋아요, 그런 건. 물론 저희 직원도 10년 다닌 직원 있고 15년 다닌 직원 있고 20년 다닌 직원도 있어요. 요즘 직장 취업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MZ 세대들이, 저희 세대와 다른 그런 심리적인 그런 어떤 세대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 하는 거죠."

"저도 주말에 해달라고 하면 다 제가 해요. 직원한테는 시킬 생각도 못합니다. 시키면 사표 써서 오고..."

"근로자는 사장은 나와야 하는 거고, 떠나면 되는 거고, 그런 회사 기업이 나하고 같이 성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근로자는 MZ 세대는 안 해요. 요즘은 없어진 단어가 주인 의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거든요. 니가 일을 할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해라. 요즘 그 얘기 하면 제가 주인이 아닌 게 맞군요 이렇다니까요."

"중소기업도 CEO가 건강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CEO한테, 중소기업도 CEO가 잘되고 건강해야 하는데, 목 디스크가 있다. 뭐가 있다. (직원들은)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사업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주들도 직업병이 있거든요."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포괄임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IT업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남

"불법이죠. 포괄임금제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불법이죠. 근로기준법으로 하면 불법이죠."

"요즘은 그런 거 안 써요. 연봉제 해서 근무 시간 기본적으로 정해요. 포괄임금제 이런 거 없어요."

"거기다 뭐라고 적는 순간 불리해지는 거예요. 사업주는. 그냥 근로기준법으로 정한다라고 써야지. 거기다가 포괄임금제 어떻게 하면 다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너무 제도가 안 맞는 거죠. 너무 생산직 여기에만 그 사람들이 약자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어쨌든 시간에 의한 페이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는 지금 너무 구시대적인 거다."

-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상담전문가 파견, 상담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 종합건강검진 지원, 노사가 상생가능한 성과보상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회계사 등)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함

"대기업은 그런 심리 상담을 해서 해소해주는 인사 노무팀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사실 관리부가 그걸 해주는데, 관리부나 사장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자기 솔직한 얘기를 안 해요. (중략) 제3자가 결국 지원센터에서 전문가가 출장을 와서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왜 불평불만이 있는지 어떤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잘 진단을 해주시면.. (중략) 그 친구가 상담해서 불만 사항을 해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소기업들이..."

"서남권 좋다 이거예요. 이런 데다 20평짜리 해서 복지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줘서 근로자들이 아침이면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출근 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 이런 걸 해 줌으로써 근로자들은 자꾸 복지 쪽 그런 차원인데 중소기업 CEO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중략) 여기 안에다가 근로자 복지센터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헬스장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구로 단지에 신체 검사 하는 직원들이 건강진단을 받는다. 어디로 갑니까? (중략) 근로자들이 항시 와서 치료 하다가 상담도 하고 자기가 있으면 그런 센터라고 하면서 근로자 건강진단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직업병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산재 적용 여부도 안 되는 것도 해주고 이런 센터지..."

"원래 서울시가 e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런데 e복지 프로그램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냐 하면 건강검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회사 직원 와이프가 유방암이 걸린 걸 체크를 해서 그걸 수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 한 명이 살은 거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지 할 때는 했다가 없애고 그러는데,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서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중소기업이 열악하다 보니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e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서 복지센터를 짓긴 당장은 안 되니까 서울시가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50대50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걸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할 때만 했다가 1년 지나니까 흐지부지 되고 지금 없어졌어요. (중략)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검진에 대한 건 중소기업에서 종합검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강 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검진.."

"아까 직원과 사장의 스트레스는 다른 거 없어요. 직원은 돈을 많이 받길 원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공정하게 회사와 직원의 성과 보상 제라고 하는 제도를 잘 마련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거 같아요"

"세무나 회계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든 아니면 회사를 분석을 해서 여기는 이런 이윤이 창출이 되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을 근로자한테 성과 보상으로 함으로써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적당한 보상을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성과에 의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를 몇 가지를 만들어 주면 그런 걸 가지고 저도 그래요. 니가 놀려고 놀고 말려면 말아라. 성과는 보겠다. 성과를 보고 너의 페이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짓 할 이유가 없죠. 시간 땀땀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IT 기업들은 성과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 연봉 5천이니까 대신에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건 없어. 밤에도 하고 혹사 시킨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너 연봉제니까 시간외 수당은 없어 이래서 근로 착취가 이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서로 정말로 성과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특히 IT 기업은 시간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역량과 자기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서 페이가 정해지면 자기 연봉에 5천만원인데, 거기서 천만원 더 성과해서 6천만원 보너스를 받으면 그거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성과 나와야 하니까 그런 제도를 시간에 의한 게 아니라 역량 성과에 의해서 페이를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거에 그런 제도를 계속 이어가는 거 생산직만 지금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에 의한 페이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는 지금 너무 구시대적인 거다. 여기 IT랑 안 맞는다. 그러니까 시간에 의한 게 아니라 성과에 의한 페이를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IT 기업은 그게 필요한 거지. IT 기업한테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 애네들이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IT 기업들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생산공장, 건설현장에서나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IT업종의 경우 근무시간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여 휴게공간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의견으로는 공동휴게시설에 건강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을 배치해 상태에 따른 유형별 대처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과 접목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공동휴게시설 설치시 주변 근로자 수요조사를 통해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함

"행태를 보세요. 근로자 20명 들어가면 아파트 형 50평 100평짜리. 휴게소가 기준이 어디냐? 그런 거는 아파트형 공장이 거기에다가 1층이면 1층 어디 공동 휴게소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업체마다 다 방 만들어서..."

"휴연 구역 다 있고 굳이 뭐 또 만드냐고? IT 회사 직원들은 8시간 지키고 있어. 이게 없거든. 편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전화 오면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받잖아요. 모르시죠? 요새 우리 회사 직원들 개인 전화 오면 다 밖에 나가서 받아. 사무실에서 안 받아 시끄러우니까."

"근무 시간에 제약을 안 받는다는 거지. 굳이 방방마다 휴게 공간 만들 필요는 없다."

"(공동휴게시설에) 심전도 측정 맥박 측정기 갖다 놓고 그걸 매뉴얼 프로그램화 해서 그래서 당신은 나중에 8번까지 해봤는데. 4번까지 검사를 해봤는데, 결국 나는 A형인가 B형인가 C형인가 네 가지 중에 어디더라 그러면 어디 연락처 각각 이렇게 해서 쉽게 거기 그 휴게소에서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프린트 해서 스트레칭 해서 이걸 하려면 심각하다."

"구로 1 2 3단지 다 해봐야 150개 정도 될 거예요. 150개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개 하면 에이스 1차부터 8차 오류에 몇 차 분석을 해보세요. 지도 놓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쪽에다가 두 세 곳 놓는다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하니까."

"수요조사 해서 물어 볼 수 있잖아요."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IT업종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해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중대재해법은 건설현장에 해당이 되지. IT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거라니까. 철공소 남동 공단이나 현장 그러면 건설 이런 조선 이쪽이지 IT는 중대재해법에 현장이 없다니까요. 거의. 좀 안 될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 중계기 설치 하러 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IT는 대부분 없"

어요."

"그건 신경도 안 써요. 뭘 준비할 게 뭐 있어? 아무 것도 없는데.."

2) 노동자 인터뷰

■ 디지털산업 노동자 일반현황 : 인터뷰 참여 7명

- 근속년수는 평균 4년
- 월 소득은 평균 2,590,000원
- 현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19.0명
-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응답자 7명 중 6명인 86%, 비정규직이 1명인 14%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7명 중 6명인 86% 가입, 1명인 14% 미가입



※ IT업종(디지털산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의 연계성이 낮은 실정으로 과로와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질문지를 적용함.

- IT개발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노동환경과 조직문화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노동환경의 문제는 프로젝트 기간의 과로와 노동강도 대비 낮은 소득수준, 잦은 파견근무 등이며 조직문화에서 오는 문제로는 사내소통이 안 되는 경우, 고객사의 갑질, 오너 일가의 의사결정 독점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저희는 프로젝트 기간(연 3~4개월) 동안 야근을 좀 11시 12시까지 한달 내내 하는데요, 아무래도 포괄임금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피로는 쌓여 가는데, 내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아요."

"저희 회사는 이제 수평적으로 참여를 하고 딱히 상사의 폭언이나 그런 건 없는데, 따돌림이나, 이제 워낙 근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쉽게 말하는 열정이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보니까.."

"매일 11시 12시에 퇴근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한다 했을 때 회사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평소에 운동도 하고 체력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 들었을 때는 제일 황당하더라고요. 다 같이 힘들고 고생한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게 힘들었고. 그게 제일 힘든 게 저녁에 뭘 먹게 되니까 살 찌게 되고 그리고 새벽까지 하고 그 다음 날 가면 계속 몽롱한 상태로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힘들고.."

"조금 힘든 프로젝트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약을 처방해서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병원도 다니고 어떤 분은 쓰러져서 병연 실려 가는 것도 있고 그거 보고 나서는 제 스스로가 일하는 양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데, 환경이나 그런 업무량이 쉽지 않아서.."

"낮은 연봉이랑 열악한 근무 환경이겠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애사심이 생길 일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봉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이 사람 근무 조건이 어떤지 아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것도 잘못된 거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을 안 하게 되고 뉘 버리게 되고. 그냥 자꾸 회사에서 혼자 왕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입을 닫고, 생각하시는 개발자 문화 헤드셋 끼고 이어폰 끼고 아무랑도 말 안 하고 내일만 끝나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전에 이제 SI 같은 거 할 때는 주로 다른 회사 밑으로 들어가서 하청을 많이 하잖아요. 원청에서 차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폭언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있었던 곳은 다 친하신 분들이라서 가끔 욕까지는 했었는데, 서버 배포할 때 보안 때문에 사인 받으러 가면 찢어 던진다든지. 맘에 안 들면 그럴 때도 있었어요."

"파견을 하다 보니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연장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뭔가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저도 파견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기서 언제까지 일을 할지, 다음은 어디 가서 일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다 생각했는데.."

"파견 말씀해 주셔서 시골 같은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서 시골을 많이 다닙니다. 제 인생이 계획적인 루틴을 잡기 어렵더라고요. 헬스를 끊으면 다음 달 철수, 파견이 가서 1년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파견을 가면 퇴근 하면 다 같이 기숙사에 다 같이 들어 갔다가 다 같이 하고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서열이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있어요. 업무 성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주변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체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통합 테스트 시작하면서 고객센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정 사항 요구 사항을 계속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소속된 회사의 임원한테도 저랑 나이 차이도 안 나시는 분이 반말하고, 욕 하는 거까지는 아닌데 심한 말 하고 그런 게 너무 많고, 마치 너네는 내가 시키는 걸 무조건 해야 해 하는 마인드로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제가 통합 테스트 하는 2달 내내 맨날 기본 10시, 그리고 힘들 때는 새벽 1시 2시에 퇴근 하고 한 달 내내 주말 다 출근 하고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 당시 체력적으로 지쳐서 좀 그때 당시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고요..."

-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자기개발이라고 받아드리며 일하는 개발자도 다수 있었으며, 업무적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휴일에도 노트북을 가져가는 등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남

"초과 근무를 자기개발처럼 느끼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자기 개발 안 하면 따라 갈 수 없으니까 요새 금방 금방 바뀌어서..."

"저는 사실은 작년 전까지는 저도 그냥 따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환경이 바뀌어서 뭐라도 공부를 하고 주제 나눠서 공부하고 그렇게 안 하면 뒤쳐진다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기술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따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자기가 배워보고 싶었던 거나 가고 싶은 분야 회사가 있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거 같아요"

"(휴가 때)노트북 들고 가요. (회사에서) 연락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다른 직원이 처리를 해주긴 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그 직원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이 아는 히스토리가 있으면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저는 예전에 해외 여행 가서도 전화를 받고..."

"카톡 방에 계속 올라오고 문제 있다더라 그걸 무시하고 놀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요. 솔직히.."

- 사업장 자체적으로 개선을 할 수 없는 이유로는 개선의지가 없는 IT업계의 오랜 관행적 사고방식과 신고자를 외면하거나 따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불합리한 폭언을 듣고 신고 했어요, 오히려 역풍 맞을까 봐 안 하지 않을까?"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부당 해고를 당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했어요. 어찌저찌 다시 부당해고 된 게 아무 것도 처리 안 되고 복귀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복귀하기 전에 대표님이 저희 본사 직원들 다 모아서 그 사람한테 말도 걸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업무적인 거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중략)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은 노무사한테 신고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부당한 건데, 저희 회사 사람들이 그분을 다 욕하더라고요, 독하다고.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업장에서는 그게 힘든 거 같아요."

"복귀를 했는데 다들 사내 왕따시키고 일도 제대로 된 거 안 주니까 (끝까지 대응하지 못하고) 본인이 힘들어서 나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고를 한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야근을 많이 하는데 프로젝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상식적으로 잘못 된 건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조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을 하면 제가 총대를 매야 하잖아요. 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야 하고, 저 아까 잘못된 게 없는데 회사에 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제가 다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 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신고할 때 신고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로는 포인트제를 도입하여 신고횟수나 신고내용의 중대성 크기를 점수화하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없애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스스로 정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포인트제를 넣어서 입찰 할 때 못 하게 불이익을 준다 거나 중소기업은 제가 알기로 직원들 월급 나가는 세금도 많이 혜택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일 때, 그런 혜택들이 그런 신고 횟수가 쌓이면 신고 횟수를 (더)해서 그런 혜택을 제하면 대표가 눈에 불을 키고 다니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잡을 거고, 대표가 불을 키고 다니면서 야근 6시

되면 집에 가 할 거란 말이에요.”

-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 환경 속에 있다보니 근골격계 질환이나 시력 저하 등 건강 문제를 앓고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회사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저희 회사는 점심 때마다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 가는 직원도 있고. 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지원을 해주면 좋는데, 모니터도 각자 알아서 세팅 하고 의자도 각자 세팅 하고 환경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눈 건강 시력이 나빠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안경을 얼마 전에 맞춘 거 같은데, 이게 안 맞는 건가? 눈이 안 좋아지는 게 확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눈 건강..."

"손목, 목, 어깨 다"

"스스로 틈틈이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가능한 시간에 산책을 나간다면 이걸 프로젝트랑 사업단위 별로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데, 산책을 허용해주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 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사업단도 있고. 저는 파견이다 보니 프로젝트 별로 달라요. 근무 환경도 좋은 건물에 있을 때는 너무 좋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으면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

- 일부 사업장의 경우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당사의 종사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단체로 퇴사를 했던 영향 때문

"회사에서 운동 헬스나 이런 거 끊으면 끊은 거 비용 영수증을 가져다 주면 30만원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쪽 나간 적 있어서, 그때 정신 차리신 거 같아서..."

- 사업장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는 대체휴가의 제도화, 건강관리용 바우처나 쿠폰 지급, 지원센터 직무 스트레스 완화 교육이나 상담의 의무화, 대화모임 개최, 비전공 개발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소개 및 제공 노력, 포인트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사실 야근을 하든 월 하든 꼭 포괄임금제를 개선을 못 하더라도 대체 휴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게 법적으로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저희는 대체 휴일을 주긴 해요. 그 기준이 모호한 게 평일에는 10시 이후부터 생겨요. 10시 이후까지 해야지 그제서야 야근이다 하는 거죠. 6~10시는 야근이 아닌 거예요. 시스템상.."

"저도 두 가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금전적인 지원, 바우처나 쿠폰 형식으로 작은 규모 사업장에게 이런 명목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직원을 두기 어렵잖아요. 이런 센터가 있다면 이런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안내에서 그치면 사실 안 하거든요.. 개발 들어갈 때 보안 교육이 필수 인 것처럼 센터 방문을 필수처럼 해서 하루 잡고 하면 어느 정도 작은 규모 사업장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IT 업계는 이제 다들 이렇게 점조직처럼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 성격상 이 직무에 있는 사람 성격상 다들 말을 많이 안 하세요. (중략) 그런데 이제 이런 센터에서 그런 사람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장을 만들어 주면 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 커뮤니티에 올려 버리고 올려 버리고 하다 보면 그런 회사는 안 가지 않을까? 회사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표님이 정신을 차려서 좀 더 업무 환경을 제공해준다는거 (하면) 발전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개발자로 아직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20명(국비지원 교육자) 중에 5명 정도가 개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탈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다들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장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불합리한 일이나 부당한 것들이나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교육을 책임을 우리가 책임을 져서 IT 인력을 키워 줄게 해서 인력을 만들었는데 고용 시장까지는 손길이 안 닿으니까 거기 학원 출신은 갈 데가 없어요. 이력서 어디를 넣어도 국비지원 못 꺼서, 흔히 다들 아시는 카카오 이런 아니면 중견 기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력 쌓으려고 중소 기업에 가는 건데, 따로 정보도 없고 저도 이런 기반을 통해서 취업한 케이스지만,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탈율이 늘어나고 좀 더 국비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수료 하고 나온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좀 더 괜찮은 회사로 선택 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면 그런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풀이 자꾸 자꾸 줄어들게 되니까 인력난이 시달리고 자기네들이 그런 임금과 로열 패밀리 부당함 부조리함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안 가니까.."

"아이러니한 게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 처음부터 인력을 쓰면 힘드니 내가 지원 해줄게(정부에서) 이래서 디지털 인재 그런 걸 줘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은 한 6개월 동안 공짜 인력을 쓰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돈을 잘못 쓰고 있는 사례인 거죠. 그러니 작은 사업장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들으나 형식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고, 일부사업장의 경우 보험·상조 등 영업목적의 불법 교육을 들었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이 있어도 동영상이면 켜 놓고 안 보거든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하면서 켜 놓고 수료만 해서, 오히려 그걸 보고 있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그거 위탁으로 와서 해주시는 강사 분들 계시잖아요. 1시간 반인가 하시는데, 20분 하시고 1시간 보험..."

"회사에 와서 강의 해주시는 분이 끝나면 꼭 뭘 파세요 상조같은 거 팔고"

-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질환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지원사업이나 EAP, 근로자건강센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아는 참여자는 없었고, 알게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근무시간이 겹치거나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

"(아시는 분이)한 분도 안 계신 거 같아요." (모두 침묵...)

"(근로자건강센터)운영 시간은? 못 같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 정부지원사업이나 관련 기관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건물의 엘리베이터 디지털 게시판 등을 활용하거나 IT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 이용률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주는 방법, 이용자의 후기글이나 인터뷰 영상을 담아 홍보하는 방법 등을 제시함

"엘리베이터에 붙여야.."

"커뮤니티를 좀 더 카테고리를 늘려서 홍보를 하시면. 상담심리사 직원 건강 전문가 분들 아무래도 IT 쪽에 계신 분들이 심적으로 쪼이고 공부 한다는 압박감도 많이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도 이런 것들 주로 올리시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 같아요."

"이걸 많이 하는(지원사업이나 기관을 잘 활용하는) 회사한테 가산점을 주면, 거기에 가산 점 항목으로 뭔가 이런 걸 지원하는 회사다 하면..."

"참가비를 리뷰를 쓰면 줄게(리뷰 이벤트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쓸 거 아니에요?"

"후기 같은 거, 저희들이 그걸 보고 기대하는 무료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해주겠어? 하고 안 가는데, 인터뷰나 후기 같은 걸 보면 더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까)."

4. 생활폐기물수집 · 운반업

1) 사업주 인터뷰

■ 폐기물수집 · 운반업 사업주 일반 현황 : 인터뷰 참여 3명

-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평균 31.0년
- 월 매출액은 평균 330,000,000원
- 현재 고용 중인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41.3명
 - 정규직은 평균 39.3명으로 95%
 - 비정규직은 평균 2.0명으로 5%
 - 유급, 무급 가족종사자는 0%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3명 중 모두 100% 가입



- 안전보건공단 추진 재정지원사업과 관련, 참석자 1명만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을 알고 있고, 전원이 근로자건강센터 지원사업을 알 뿐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함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관련, 한 개 사업장을 매개로 참석 사업장 모두

- 근로자건강센터와 ‘우리회사 주치의’ 등 유기적인 활동을 시작함
- 그러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상담과 검진 결과에 의한 기초건강관리에 그치고 진단이나 치료까지 연계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밝힘
 - 한편 노동자가 건강 상담을 하면서 직업성질환 등 산재로 이어지지 않는지 우려함. 산재로 이어질 경우 사업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기 때문.

“지금 이 내용을 대강 봤는데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이거 오래된 거 같아요. 클린사업장이라고 교육 이수자 해서 안전용품에 대해서 지급하거나. 10년 전 같은데. 그때 있었던 거 같아요. 한 번 받았어요. 안전화 쪽으로 해서 한 번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고. 산업안전공단에서 했었어요.”

“전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업계 쪽은 안내를 받는 곳이 드물거든요. 보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안내해주는 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드물고, 보통 안내 오는 건 법정 교육해라 이렇게 팩스 주는 거. 그러니까 유사한 이름으로 오는 데가 많죠. 막상 전화를 해 보면 무슨 사업(보험 영업 등)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잘 진행을 안 하죠.”

“이건(근로자건강센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우리회사 주치의하고, 구청과 협약을 했고, 내용이 좋으니까 저희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다가 이런 게 있다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협약 맺고 (다 같이) 적용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다 저희가 50이 넘었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한쪽 팔이 아픈 사람 목이 아픈 사람 그런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칭 하라고 하고 이런 것밖에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회사 주치의가 좋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후속으로 지원이 되면 좋은데, 건강 상담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 연계가 되면 좋은데,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 몸 상태는 확인이 되는데,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심혈관 질환이든 뭐든 폐에 관련된 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산재 쪽으로 흘러가 버릴까 봐 그게 염려스럽죠.”

“근로자가 약간 아프다고 하면 진찰하면 99% 이상은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점에 와 있는, 최대한 타이트하다고 말씀 드려야 하나? 그렇게 운영을 하는 실정인데, 산재 하나 처리하면 그 리스트가 오래 가요. 그리고 산재 하나 잡히면 3

년까지는 가잖아요. 안 없어져요. 기록이, 3년 아니고 한 번 일어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평가나 이런 문제가 될 때 감점 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참 불편하죠.”

“차라리 데이터를 건 수가 아니고 산재율이 나오잖아요. 산재가 전년도에 발생 안 됐는가? 재해율이 감소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건수로 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재율이 20%였던 게 올해 12%로 떨어졌다 하면 많이 개선이 되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데... 건수로 하면 감점 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 평소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업주 차원에서는 작업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고, 입사 이전부터 있었던 질환이 자사에 입사한 후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큼

- 또 노동강도가 비교적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특성상 대부분의 노동자가 건강 상담 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사측에서는 대체 인력이 없어 휴가를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근로자건강센터 상담 이후 대처방법까지 가능한 지원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음

“... 작업은 2순위예요. 지금은. 안전이 제일 우선에 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로자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작업하다 안일해서 난 사고에 대해서도 제가 겪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과거에 본인이 아파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승인을 안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회사에서 신청을 안 해주면 본인이 신청하면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잡히는 거예요. 일하다 다친 게 아니에요. 개인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작업하다 그랬다 하니 목격자도 없고 사업주 측에서는 억울하다 해야 하나? 이걸 아는데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입사를 할 때 면접을 볼 때 기록을 다 남깁니다. 이상 증후가 있느냐? 약을 먹고 있느냐? 이런 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아니었다가 그런 직원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이상 없다고 했는데 작업을 하면서 행동하는 게 이상해요. 다시 불러다가 면담을 해보니 허리를 다친 적 있었다고.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주면 작업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분도 나름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겠으나 사실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하면서 일이 발생했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서.”

“개인별로 상담할 때 자기는 아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프다고 했는데 회사는 뭐 했냐고?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물어보면 안 아픈 사람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프다고 사람이 쉴 수가 없어요. 인력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작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일하는 사람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영 죽을 정도 아니면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프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뭐 했느냐? 조치를 하려면 다 쉬어야 해요. 결론은 이걸(근로자건강센터 우리회사 주치의) 하니까 나중에 아프데 방치를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악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사에서는 모르는 산재, 집에서 뇌출혈 생겨서 응급실에 갔는데, 나중에 결론은 일을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다고. 일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그랬는데, 그런 거 꼼짝 없이 당하는 거죠. 관리를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인력이나 작업에 여유가 있으면 몸이 불편하면 쉬어 가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거까지는 좋은데.”

“후속 조치가 따라오면 좋은데.”

“조치라는 게 아프다고 하니까 쉬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 힘들게 일해서 아프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그거 말 그대로 안 아픈 사람 없는데, 아프니까 일주일 휴가를 가라 이게 안 돼요.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일을 하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아프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을 시켰냐고? 그러니까 조금 좋으면 서도 그런 회사에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여유 인력을 한 10명 항상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통증 완화를 위해 지원받고 싶어하는 부분은 물리치료가 가능한 이동차량 또는 노동자 개인이 자택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용 물리치료 보조기구 등

- 운동처방이나 스트레칭 등의 서비스 가능 시간대는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에 일이 끝나는 구조라서 퇴근 후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후 출근시간대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전이 최적

“제일 좋은 건 물리치료 이동식 차량(장비가 있는)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건 없으니까. 그게 갖춰져 있는 곳이 있으면 현장에 와서 대기해서 몇 사람씩 해주신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잠깐 한 시간 두 시간 특정 부위를 풀어주고 하면 그러면 좋긴 할 거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건 직원들이 귀찮아할 것 같진 않아요.”

“어디 가서 뭘(운동처방 등) 해라 이걸 좀 (어렵죠).”

“가장 좋은 건 개인별로 지급하는 물품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잘 때 이렇게 하고 자라고. 이게 가장 좋을 거 같아요.”

“안마기든지 복대(소프트 웨어러블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사용할 수 있으면, 모아 놓고 몇 사람이 차에 들어가서 안마받고 나와라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필요할 때 끝나고 맘 편하게 집에 가서 착용을 하고 아픈 부위에 그런 건 좋을 거 같은데, 강제성도 없고. 주면 가지고 가서 안 할 사람은 없을 거 같아요. 자기 편리할 때 잘 때 이렇게.”

“그 팀이라고 해서 각자 하는 일이 틀린 게 아니고 2인1조로 동시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분야가 틀려서 이 팀은 10명 저 팀은 10명 이렇게 되면 팀별로 관리가 되는데, 2인1조로 팀을 짜서 동시에 작업을 그것도 실내면 되는데 외부에 나가서 자기 담당 구역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서 휴게실에서 작업복 갈아입고 하다가 작업 시간이 되면 각자 (작업)차량이 있으니까 그걸 타고. 자기 담당 구역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어떤 제조업이 돼서 특정 장소에 모여서 있으면 그것도(단체 운동처방 등) 가능 하죠. 그런데 항상 바깥에 나가야 일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전체 모이기가 힘들죠. 끝나면 바로 퇴근하려고 하지. 피곤하니까. (끝나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다고 답해 이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사업을 일일이 설명한 후 수용 가능 여부, 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의 인터뷰 내용임

- 건강디딤돌 사업,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에 관심이 높으나 적용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을 받고 싶어도 예산이 소진돼 받을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내년도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대상자는 건강검진이나 상담 결과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 노동자들의 희망사항에 따라 추진할 계획

“저희도 5~6명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걸 한다고 할

때 건강 신청 건강진단 결과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 되는 분만 받는 거잖아요.”

“우리회사 주치의 하는 곳(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저희가 이번에 선별을 했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료가 넘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위험군은 몇 명 있다 해서 짚 어줘서 근로자에게 의사 표현을 물어보고 단지 5만원이 비싸 MRI를 찍으려면 MRI 자체가 비싸니까 그래서 선별을 한 거고...”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뇌·심혈관질환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

“이번에 저희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뇌 심혈관 대상자 선별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만약에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우리회사 주치의 상담을 하면서 이쪽에 정보가 있으면 상담 이후에 위험군이 누구누구다 안내를 해주시면 그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선택은 자유 의지에 맡기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회사 주치의에서 아픈 데 있어. 회사에서 이걸 안내를 해주는 걸로 하고 대책 마련을 해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히 뇌·심혈관 질환은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 하반기 우리회사 주치의 하고 나서 리스트업을 해서. (내년 초에 신청을)”

“야간 작업을 하다 보면 뇌 심혈관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힘을 쓰는 일이라서 압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걸 (필요합니다).”

- 서울시에서 금년에 추진한 ‘서울시 ISO 45001 신청 지원사업’ 과 관련,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대비 수단으로 유용할 것으로 여김

“이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라고 그동안 저희가 안전보건에 대해서 개선했던 사항들을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컨설팅 비용하고 인증 비용까지 6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컨설팅 시작이 들어갔고요. 하나 아셔야 하는 게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3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받고 나서 다음에 3년 차에 재인증 받아야 하는데, 1년차 2년차에도 자부담으로 비용이 100만원 정도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내부에서 진행하자고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걸 받아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활 폐기물 업계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이후부터는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서 그 전에 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으면 향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구축이 되면 저희가 공유는 해 드릴 겁니다. 어차피 한 몸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서류는 웬만한 서류는 다 만들어 놔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먼저 인증 받고 자료 공유를 해드리면 보시고 질문 하시면 중대재해처벌법 거의 완벽은 아니어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대비는 되는 거라서 참고를 하시는 게.”

-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주들이 가장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기계 설비는 사망사고 위험이 큰 쓰레기 압축기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의 필요성 강조

“예를 들어 청소 시설 부분에 보면 압축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시설이 된다는 가정을 하면 보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전에 포함되는 거니까.”

“저도 압축기는 생각을 해봤는데, 대상이 되는지. 위험한 거예요. 떨어지고 하면 안 되는 데.”

“압축기라고 해서 쓰레기 박스에 부으면 밀어서 박스를 넣어주는, 좀 더 많은 양을 쉽게 운반하기 위한 거니까. 보통 저희 3마력 정도 밀어내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떨어져서는 안 되고. 안전과 관련해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입을 새로 하건 그런 내용인 거죠.”

“저희가 적환장(쓰레기 적환장) 이전 문제가 대두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전이 되면 대체지에 지금 시설이 가야 하거든요. 새 기계 하든 중고로 옮기든 어차피 그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지원 부분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은 거죠.”

“이전 비용이라고 하면 압축기 시설 자체가 위험도가 따르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 기계 압축기 시설 자체가 안전시설로 해서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호퍼가 있잖아요. 호퍼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호퍼에 만들어서 사람이 안 떨어지게끔.”

“호퍼에 만들어 주면 쓰레기 통과를 못합니다. 밀지를 못 해요.”

“설비 하는 사람이 닫고 누르는 건 기계 장치를 설비를 해야. 쓰레기 싣고 나면 닫고. 투하할 때 열고 이런 식으로 가야. 지금은 그게 차에서 보면 높다 말이에요. 2.5미터인가 2미터 가까이 된다 말이에요. 투하하고 닫고 밀어 넣고 열고. 예를 들어서. 1톤 이상 들어 간다 봐야죠.”

“그게 1톤 차가 하는 것 하고 5톤 차 하고 두 가지 형태거든요. 1톤 차가 할 때는 수작업으로 다 했는데, 혹시 모르죠. 안전하게 작업을 하면 좋은데, 1톤 차에서 발이 미끄러지면

압축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투입구는 어떤 차를 올라가든 사이즈는 똑같아요. 다만 기계로 쏟아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고 손으로 내리면 늦어지고 그 차이이지. 크기는 똑같거든요.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압축기가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호퍼에도 그렇지만 탈부착할 때 이것도 안전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과연 안전에 대한 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걸 판단을 못 하겠어요. 박스할 때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보완이 됐는데, 전에는 다 이렇게 굉장하. 압축기 미는 힘에 의해서 볼트가 풀린다든가 빠져 버린다고. 충격을 받으면 손상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스위치는 기계실 옆에 위에 있는데, 만약에 작업하다 떨어졌다 여기서 제동시켜줘야 하는데 못 시키잖아요. 사람하고 쓰레기하고 분류를 못 한다고 기계가.”

“압축기는 밀고 간다고. 사람이 압축기가 잡을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철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이 잡을 데가 없어요. 떨어지면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그거라도 밟고 기계실 스위치라도 꺼줄 사람 있으면 되는데, 혼자 하다가 일을 당하면 할 수 없죠.”

- 정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사업주가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협회, 협의회 등 동종업종 공식 협의체를 통하거나 사업장과 유기적 교류가 많은 구청을 경유하는 방법을 꼽음

“지금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사가 있을 텐데, 그 협회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이런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사에 전파를 부탁한다 그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거의 모든 분야별로 친목 단체나 협회라든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회원사의 권익을 도모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여기가 서울시니까 서울시에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종별로, 업종별 협회가 있으니까 협의체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 구청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담당 부서에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텐데, 그런 거를 아니면 보건소 같은 데는 요식업 이런 거 음식점이 전부 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구청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중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하면 각 회원사에...”

“홍보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구청 관내에... 여러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얻든지 그렇게 하면 그 조직에 대해서는 조합이라든지 중앙회라든지 거기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를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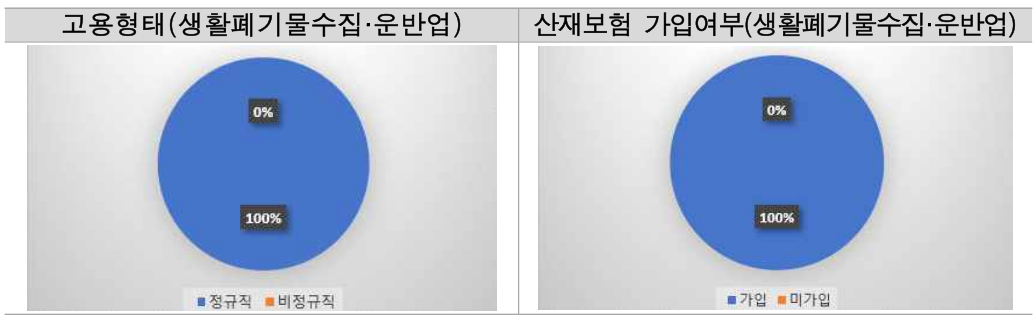
“자료는 관공서에 있거든요. 이런 걸 홍보를 하려면 우리도 몰랐는데. 가장 좋은 건 협회를 통해서. 회원사에... 그게 가장 빠를 거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 협회는 다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어느 업체가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거는 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는 거기에 해당 안 될 겁니다.”

2) 노동자 인터뷰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노동자 일반 현황 : 인터뷰 참여 5명

- 근속년수는 평균 3년
- 월 소득은 평균 3,038,000원
- 현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47명
-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응답자 5명 중 전체 100%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5명 중 전체 100% 가입



※ 이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사업,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일부를 일일이 설명한 후 수용 가능 여부, 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뷰 내용임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과 관련, 환경미화원 업무 특성상 새벽에 퇴근함에 따라 퇴근 후 이용이 불가능하고 출근 전 이용은 부족한 수면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라 이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용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건 이용을 못 할 것 같아요. 현실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대부분 다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끝나고 새벽에 자고 나와야 하는데 그건 안 될 거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다 달라요. 새벽 2시에서 5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때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2시에 끝나는 분들은 좀 더 일찍 나오고, 일하는 업무들이 틀리니까.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2시에서 5시 사이.”

“보통 일하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요.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해라 동네에 걸려 있어요. 6시부터 배출을 하라고. 동마다 차이는 있겠는데, 성북구 지역은 6시부터 수거를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시간이 (새벽)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파서 가고는 싶지만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지,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피곤해서...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휴식을 더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잠을 더 자고 싶은 거죠.”

“남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에 저희는 자야 하잖아요. 다른 일을 못 해요. 생활에 무슨 일을, 병원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고 싶어도 자고 싶다는 거죠.”

-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을 내서 진단을 받으러 가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밝힘

“이거 좋네”

“이거는 해볼 만 하다.”

“처음 들은 거예요. 이런 걸 잘 접해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늘 듣는 게 처음 듣는다고. 이런 이런 부분도 있다. 건강센터도 갈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 듣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서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직장인으로서 회사에다가 진짜 많이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면 위쪽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서울시 업체는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이쪽 계통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쉬어. 연차 내서 쉬라고 하는데, 연차도 1년에 12개잖아요. 그 연차조차도 솔직히 회사에서 쉬길 원하죠.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쉬면 그 팀에서 한 사람이 쉬면 그 팀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죠.”

“대체 인력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작업을 하라고 회사에서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이라고 해서 대체 인력 주고 연차도 줬는데, 그래도 하나 빠지면 5명이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 일을...”

-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수시로 받고, 사측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방법이나 생활 쓰레기·재활용 쓰레기 분류가 잘못돼 화재, 배임이나 찢림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길 희망함

“저희는 잘하는데 버리는 사람이 문제죠. 요 며칠 전에도 누가 배터리를 버렸어요. 재활용 안에 같이. 기계 닿으니까 철판에 닿으니까 불이 났어요, 차 안에서, 그러면 그 큰 뚜껑을 열어서 파야 해요. 연기 나는 데까지 찾아내서 물을 부어야 해요. 차에 물이 석수 두 통 들어 있는데. 가끔가다 소방차도 불러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석면을 가끔가다 쓰레기 봉투가 만능 봉투라고 해서. 석면 제거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쓰레기 봉투에 집어 넣는 거예요.”

“사람들 인식에 쓰레기 봉투에는 생활 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것만 집어넣어야 하는데, 태울 수 있는 것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폐기물 같은 거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위험의 소지가 많죠. 태울 수 있는 것만 넣어야 하는데, 병 같은 것도 깨진 병뚜껑 넣어 놓고 하는데, 손으로 잡다 보면 다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건 재활용으로 병 종류로 해서 버려야 하는데, 일반 태울 수 있는 생활 쓰레기 봉지에 사람들이 몰래. 사실상 보이게 있으면 조심하는데, 오히려 더 안 보이게 하려고 넣다 보면. 보이면 안 가지고 가니까. 무심코 봉지 잡다 보면 찢리는 경우도 많고 (손이) 찢어지는 경우도.”

“(경험이 모두) 다 있죠. 1년에 한 번씩 찢어져요.”

“생활 쓰레기(봉투)는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뽕뽕하죠. 재활용은 봉다리에 버려요. 일반 세탁 봉다리에 버려요. 겨울에는 뜯어져요. 세탁 봉지 쪽 찢어지지. 찢어지면 그걸 다 줍기에는 뒤에 차가 밀려있잖아요. 빼야 하잖아요. 그냥 가죠. 민원을 넣어요. 애네가 안 치우고 퍼뜨려 놓고 갔다고. 욕은 내가 먹고, 욕먹을 사람은 솔직히 버리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하고. 이런 교육도 솔직히 그분들이 받아야 해요. 저희가 안전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파상풍 주사를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2년에 한 번인가?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으니까 회사에서 기간이 다 되면 맞아요. 의무적으로.”

“저희는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하지만 역시 버리시는 분들이 그 안에 폐기물을 넣는지 이런 교육을 우리도 받지만 홍보 좀 많이 해야 할 거 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숨겨 놓으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죠.”

“제가 일하다가 진짜로 깜짝 깜짝 놀라요. 들어보면 알아요. 생활 쓰레기는 무게가 측정되는데 묵직한 것들이 있어요. 묵직한 거 있으면 이건 음식물 섞인 줄 알고 봉투를 열어보면 그런 고양이 죽은 것도 있고. 고양이 비둘기. 그것만 빼고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다 수거해야죠.”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가지고 와야 해요. 손(으로) 잡으면 무조건 갖고 와야 해요.”

“(생활 쓰레기는) 100% 소각이죠. 요즘에는. 구 별로 구마다 소각장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원은 여기 중계동에 소각장 있어요. 그쪽으로 동대문도 오고 여러 군데서 와요.”

“(소각장) 사업장에서도 검사를 해요. 소각해서 버리지만, 받아 주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어느 정도 버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안 좋은 게 나오면 차량이 정지를 먹어서 못 들어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좋은 건 고르고 웬만하면 태울 수 있는 거 해서 실어서 갖다 버리는 거죠. 안 좋은 건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거고.”

“엄청나게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60짜리 80짜리 다 있잖아요. 언제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 들어보면 이거는. 느낌이 오니까.”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인지 안 좋은 게 섞여 있는 건지 알아요. 그러면 봐서 분류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다 하면 실고 아니면 빼놨다가 따로 폐기물 박스에다가. 일을 해보니까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굳이 찢어보지 않아도.”

“공영 방송에서 CF처럼 서울시는 이렇게 이렇게 버리셔야 하고, 배출 시간 몇 시입니다. 딱 이렇게 그래야 사람들이 보지. 유튜브라든지. 가장 피크 시간대에 광고 때려줘야 해. 지역 케이블 있잖아요. 지역 방송 광고 시간에. 그렇게 해서 해야 그나마 개선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보 방법이 없어요. 구청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안 보니까. 이거 나눠줘야 누가 보냐고요? 솔직히 안 봐요.”

- 작업 중 가장 위험한 상황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도로에서의 작업에 따르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답함
 - 특히 참석자 전원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리 없이 빠르게 접근하는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를 경험하거나 경험할 뻔했다고 답함

“저희는 길거리에 있는 여러가지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항상 굉장히 위험하다 할 수 있죠. 도로에서. 왜냐하면 도로가 고정된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 도로에서 무조건 서서 내려서 싣고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도로에서 작업을 하니까. 도로에서,”

“도로에서 차들이 운행 중에 (우리 차량이) 서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아시다시피 이게 10미터 떨어졌다거나 5미터 떨어졌다거나 그게 없이 주민들이 마음대로 내놓으니까 거리랑 상관없이 좀 더 갈 수도 있고, 항상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노출이 있죠.”

“일반적으로 차를 어디 목적지 10분 20분 50분 30~40분 서서 정차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저희는 이동을 가다 서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일하다 보면 차를 막고, 다른 차들이 뒤에 서 있으면 불안해서 일이 안돼요. 치고 나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 차를 피해줘야 해서.”

“항상 5톤은 뒤에 사람 하나가 따라 다니거든요. 차가 서 있으면 뒤에 사람이 실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물건이 보이면 이쪽에 뛰어 가잖아요. 이쪽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들이 많죠. 깜짝 깜짝 놀라고.”

“요기요 이런 거 배달하는 사람들이, 제일 커요. 물론 그분들도 시간이 돈이니까 하지만, 너무 막무가내예요. 너무 막무가내.”

“그래도 몰라요. 오토바이가 오는 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작업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오토바이 접근하는지도 몰라. 차에 내려서 작업하다 보면 차 엔진 소리도 있고 신경 쓰다 보면 오토바이가 오는지도 몰라요. 오토바이가 정말 위험해요.”

“일반적으로 운전해서 어디 가면 정차해서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하면서 내렸다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도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 볼 수 있죠.”

“솔직히 저도 오토바이랑 많이 부딪혔어. 그냥 보내지. 심하게 안 부딪히지 않은 이상. 백

미러 툽툽 치고 가요. 그냥 가라고. 제가 괜찮으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런데.”

“습관적으로 차 문을 열 때 차가 항상 주행을 하니까 백미러로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그리고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 싣다가 이렇게 왔을 때 항상 고개 내밀고 오토바이 지나가나 보고. 그러다가 한 번의 실수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천 번 잘하다 가도.”

“저희가 도로에서 작업을 하면 맨 끝 차선 인도 있는 부분에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이게 인도면 여기다 쓰레기 내놓으면 끝 차선에 가서 여기 쓰레기가 있다 하면 차 세우고 내려야 한단 말이에요. 내려서 이렇게 쓰레기 실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1차선 2차선 차들이 썩썩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고.”

“다시 탈 때. 싣고 탈 때는 고개를 숙 내밀고 1~2차선에서 차들이 오나 안 오나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은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밤에는 정체가 별로 안 되니까, 웬만해서는 50키로 이상 달릴 거예요.”

- 정부 지원책을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거리 현수막 설치, 텔레비전 광고방송이라고 답함.

-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나 기관 등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 선택형 안전화, 형광색이 선명한 작업복 지원 등을 꼽음.

“(홍보는) 현수막이 가장 낫죠.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따로 인터넷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장비 지원이 우선이겠죠. 반짝이는 옷을 한다든지. 신발을 좀 더 솔직히 신발 지급품이 나오잖아요. 오래 신을 수 없어요. 많이 못 써요. 재활용은 유리 밟고 밟다 보면 두 달, 다 주워 신어요.”

“(안전화를) 주는데 견디지 못해요. 2개월만 가면 안전화가 떨어져요.”

“주는 것도 좀 이렇게 저희가 선택권을 해서 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신발 보시면 밖에서 보시면 다 똑같아요. 신발 벗고 나서 내 신발 찾으려면 군화처럼 다 똑같아요.”

“업무 별로 다른 사람들은 일단 발목까지 와 주면 좋고 재활용도. 5인치 정도. 발목 이걸 올려달라고.”

“얘기 했는데, 통합을 해야 한대. 지역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가벼운 거, 그런 거.”

“쉽게 얘기해서 (안전화를)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해주시고 옷도 그렇고.”

- 한편 모두에게 필요한 공적 일을 수행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

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함

“일반 시민도 그래요. 차를 끌고 나가서 어디 장소에서 쉬려고 하면 냄새난다. 시끄럽다. 식당도 들어가기에. 식당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차가 서 있다. 난리 날 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공공의 일을 하긴 하는데, 개개인적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하는데, 자기 집 앞에 그 차가 서 있다. 냄새나니까 빨리 가세요 라고 하죠.”

“공공의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집 앞에 세워 놓으면 난리 나죠.”

“그 사람들 자기들이 안 좋은 걸 해주지만 사람들은 저희가 근처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5. 금속가공업

1) 사업주 인터뷰

■ 금속가공업 사업주 일반 현황 : 인터뷰 참여 10명

-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평균 17.9년
- 월 매출액은 평균 20,280,000원
- 현재 고용 중인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1.7명
 - 정규직은 평균 1.2명으로 71%
 - 비정규직은 평균 0.1명으로 6%
 - 유급 가족종사자는 0%
 - 무급 가족종사자는 평균 0.4명으로 24%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5명 중 2명인 40% 가입, 3명인 60% 미가입

직원 고용형태(금속가공업)



산재보험 가입여부(금속가공업)



- 금속가공업 인터뷰 참여 사업장은 산재 가입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산재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여겨 스스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의 부담감 때문

"신도림에 공장이 한 공단만 해도 700 몇 십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산재 가입한 업체가 20% 정도 밖에 안 돼요. 전부 미가입자예요"

"산재 가입을 하면 안전장치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받아요. 그 안전장치를 부착하면 실제 생산능력이 안 나. 그래서 왔다가 체크 하고 가면 다 띠어. 엄청 불편해요"

"미가입자는 그만한 형편이 안 돼서 못 들은 거니까 누구든지 오너가 직접 일을 하는 것 보다는 누군가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킨다면 오너가 편하겠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오너가 직접 일을 한다 말이죠."

- 일부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함

"산재 업장이 돈 들어가서 나머지 사람도 이런 교육도 받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산재를 안 들으면 이런 교육도 없어지고 지원도 못 해주고, 사장님처럼 집진기 하나 해줘야 한다 뭐 한다, 그것도 우리가 돈 내니까 지원도 해주고 그런 면이 있는 건데. 다 사업장이 힘들지만 이것도 보험이라는 거죠. 내가 사고 당했을 때 보험금 타먹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건강 보험이든 뭐든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

- 정부지원사업을 잘 모르는 이유는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사업주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하고 바쁘다보니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 대출이 됐든 지원이 됐든. 일일이 개인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지원 대책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알겠지만 서울시가 했던 국가에서 할 때는 안 와요"

"장비지원이든 뭐든. 그런데 개인사업하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 살기 바쁘니까. 일 하기 바쁘니까. 인터넷도 보기 힘들도 하니까"

- 정부지원사업을 접하게 되는 경우는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브로커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남

"거기서도 브로커가 있어요. 지원금 주는 거 하는 거 있어요. 브로커가 그 사람들 돌아

다녀요. 해주고 어느 정도 몇 % 받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제가 나라에서 하는 걸 작년에 해보니까 한 사무원이 컴퓨터 들고 와요. 사업장이 많은 걸 찾아요. 여기 분야가 어떤 분야고 나라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장비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주더라고.."

"우리 얘기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시책이 나오면 몰라요.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대출이 됐든 지원이 됐든. 일일이 개인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지원대책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알겠지만 서울시가 했던 국가에서 할 때는 안 와요. 얘기했지만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3천만원 있는데, 하시면 제가 보험 하나 들어주시면 저도 그거 때문에 3천만원 받았는데. 보험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서울시 해드린다고 알고 봤더니 보험 안 해도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건데 몰랐던 거야. 누가 안 가르쳐 준 거지. 서울시가 됐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되는 건데, 모르니까 브로커 와서.."

- 정부지원사업을 알더라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일로 인해 바쁘거나 서류제출에 대한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사실상 좋은 내용이라도 우리 같은 이런 소규모 업체는 왔다고 하면 작업에 피해주니까 가세요 그래요. 막상 지나고 보면 누가 혜택을 받고 하다 보면 그런 거 나한테 왜 얘기 안 해줬어? 말이 나와요."

"이게 진짜 쉬운 건 아니예요.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영세업자들은 일하기 바쁜 와중에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하면 안 들을 테니까 가세요 문전박대 해요. 그렇다고 이 많은 걸 신도림 모임 밴드에서 올린다 한들 다 읽어 볼 사람 없어."

"지원해준다고 해도 이거 서류 떼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서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대리도 해주겠다 하면 되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하기 바빠서 이거 서류 내기도 힘들어요. 저번에 한 번 해봤는데, 한 달 넘게 걸려요. 그게, 쫓아 다니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서류 국가이기 때문에 서류가 없으면 없잖아요.."

- 정부지원사업을 정확히 인지하였을 때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내용이 괜찮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주변에 추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함

"이런 건 좋죠. 그죠? 주변에서 누가 해도 이거 해야 할 거 같다고 추천해서 하라고 추천도 해줄 거 같고. 70% 지원받는데 30% 내고 안 하겠습니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서류작성만 해주세요. 그게 지원을 해주면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하죠. 지금도 기계도 70% 지원을 해주잖아요. 나라에서, 설비 같은 거 기계 필요한 것도, 이 친구 받았어요."

- 정부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간단한 안내카드 등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동종업종 모임 등을 통해 배포하거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관계자가 직접 가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하고 참여자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함

"요약에서 조그맣게 카드 식으로 만들면 그런 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요약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면 문의를 이렇게 어디를 연결을 한다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현재 신도림에서는 100% 가입이 안 된 상태지만 우리 공용 밴드가 있잖아요. 협의회, 거기다도 올려주시면.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보충 설명을 넣어 주셔야 해"

"내용만 딱 이거 한 장 올려 놓고 끝내면 뭐지? 하고 지나가 버려. 이걸 딱 올렸으면 조금 보충 내용을 조금 단서를 붙여줘서, 어 이게 이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에 조금씩 올려주셔도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통해서 향우회 단체모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올릴 수 있게, 일단 제일 먼저 협의회 단체 밴드가 있으니까 신도림에는. 안에 공장으로는 100% 가입은 아니고 현재 거의 40% 정도 가입되어 있나? 50%는 안 될 거 같은데. 일단 올려 놓으면 거기에서 다시 이분들이 단체나 친목으로 퍼져 갈 수 있고. 단 하나 올릴 때 보조 내용은 붙여 달라. 그리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쯤 신도림 와서 한 번 보충 설명해주겠다. 이분들이 다시 이리 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근처면 모르겠지만 광명시 사시는 분 부천 사시는 분, 각자 집에 가셔야 하는데, 일 부러 찾아오기 힘든 거예요. 간담회를 하면 신도림 지역 근처에 식당 말고 그냥 조그만 사무실 하나 빌려서 간담회를 해야지, 진짜 여기는 첫째가 교통편이예요."

"그 전에 보니까 동사무소 신도림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있어서 동장님하고 얘기 잘 하면 잠시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 전에 보면 우리 신도림에 모임 한다고 협의회 만든다 했을 때 빌려서 사용한 적 있었어요. 아마 그게 동사무소에 거기가 회의실 있는데 크더라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역 별로 대표 몇 분이 오셔서 좌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홍보 대사가 된다면 그나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찾아 오는 거, 솔직히 저 분 말씀 잘하셨어. 솔직히 힘들어. 찾아 오시는 쪽이 나아. 구로동이면 구로동 관할 신도림 신도림 모이고 구역 별로 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 지역 별에 오셔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 같아요."

"장소 같은 경우는 제일 무난하게 주민센터 회의실이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왔는데 장소를 빌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현장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필요하나 예산 소진이 빨라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견과 인력수급이 안되고 일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로 인해 산업 자체가 발전이 없고 쇠퇴하고 있어 젊은 인력의 수급과 일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함.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대출 서울시에서 나오는 금리 싼 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노후된 장비를 바꾸든지 사업장에 에어컨을 달던 기계 노후화를 하던 다 힘들잖아요. 하여튼 봉제부터 다 힘들어요. 솔직히. 버틸 수 있는 건 지원 대출이 뭐가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고. 그런 걸 말씀해주셔야 해. 그런 게 있구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지원 사업 현황 뭘 지원하는 건지 간단하게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 보다는 이런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 말씀 드린 거예요. 소상공인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그런 게 좋잖아요. 그것도 3~4월이면 제가 알기로 1~3월까지는 만약에 2023년 내년 정부에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 12월달인가 올해 다 끝나요. 내년에 대출 할 거면 보통 3~4월이면 돈이 끝나요. 나중에 아시는 나 늦게 알았다. 대출을 원해도 그만큼 원하는 게 숫자가 안 나오더라고..."

"제 주변은 노동자가 없어요. 일 많아도 문제고 일 없어도 문제고,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다 편한 데로 가고.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고 제조업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금형 자체는 아무래도 고차원적인 기술이라고 봐야 해요. 연륜이 많이 필요하거든. 다들 자동화 기계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걸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손으로 만들고 창출하는 건데 이런 기술자가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제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 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해 버려. 그러니까 현재 이런 고난도 기술 관련된 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런 제조업에서 나오는 건 전부 수입해 와야 해. 국내 기술진이 다 죽었어. 저도 이제 70이 다 됐지만, 이제는 관둬야 하거든. 누가 하나 내가 가르친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배워서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금형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놓게 되면 걱정이예요. 언젠가 전부 다 수입해서 와야 해."

"저는 제조업이라 지원 다 필요 없어요. 국가 기관들은 국산만 썼으면 좋겠어요. 제품을. 다 제조업 먹고 살죠. 일단 한국노총에 연관되어 있어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한국노총기관 그 업체들 기계 정비든 뭐든 국산만 들어오게끔.."

"요소수도 봐요. 중국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걸. 우리나라도 우리도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없어져 봐요. 어떻게 할 거야? 지원 해줘 봐야 의미 없지. 일단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만 먼저 국산만 외국산 쓰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제조업 살아남을 거 같아요."

-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외부 인력의 불법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상조회나 들으라고. 교육 잠깐 하고. 한 5분 10분 컴퓨터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조회 자기 상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판매업자가 소개를 시켜줘서 그거 해서 브로커 보험 들고 그래서 했는데..."

"교육 받아야 해요. 안 받으면 벌금 내기 때문에 무조건 팔러 오더라고."

"보험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서울시 해드린다고 알고 봤더니 보험 안 해도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건데 몰랐던 거야."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무응답했으며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해 위험성평가,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준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지원받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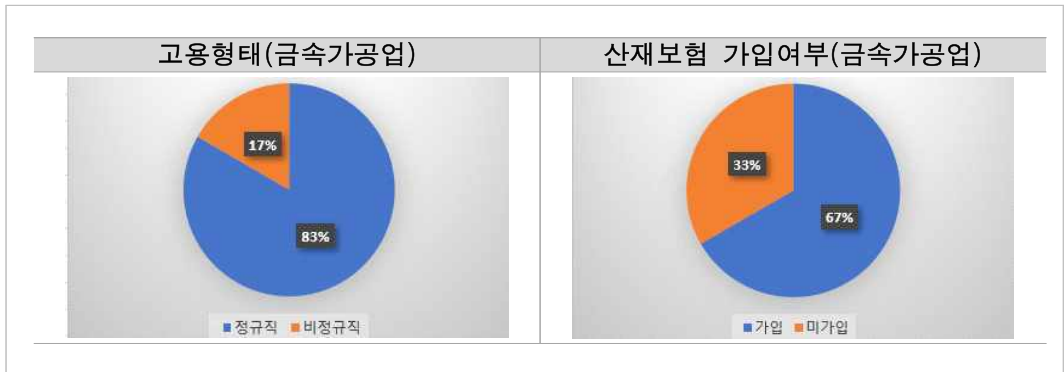
"준비는 없어요. 각자 개인이 일하는데, 뭐랄까? 대책 세울 게 없어요. 선반직이라 자기 물건 안 채우면 안 다치니까."

"교육 받을 시간이 없어요. 다 일하느라. 1년에 의무 교육 있잖아요. 2번 받는 거 그것도 힘들어요. 30분씩 하는데.."

2) 노동자 인터뷰

■ 금속가공업 노동자 일반 현황 : 인터뷰 참여 6명

- 근속년수는 평균 9.7년
- 월 소득은 평균 2,790,000원
- 현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10.5명
-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응답자 6명 중 5명인 83%, 비정규직이 1명인 17%
- 산재보험 가입은 응답자 6명 중 4명인 67% 가입, 2명인 33% 미가입



- 금속가공업 종사자로서의 애로사항은 젊은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경제상황에 따른 회사의 위기와 급여 문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연차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내 복지 혜택이 없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함

"그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자기 때는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렇다고 강제하는 건 없는데, 웬지 그래도 눈치 보이는 그런 게 있고, 저도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런 거 때문에 눈치는 좀 보여요. 그런 건 좀 많이 있어요. 엄청 힘들진 않은데, 그거 때문에 그래서 좀 눈치를 보는 편이죠."

"애는 와이프가 키우는 건데, 이런 느낌, 남자는 돈 벌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아직도 좀 이쪽은 제조업이 아직은 올드하고. 젊은 사람이 잘 안 하잖아요. 힘든 일이기도 하고, 힘든 거에 비해서 페이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저는 급여나 이런 문제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요새는 계속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거든요. 특히나 건설 쪽이 많이 지금 조금 부도설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어서, 건축 쪽 관련이 있어서,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회사가 유지가 되어야 직원들도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솔직히 다른 부분보다 경제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빨리 되어야 하는데 희망이 안 보이네요. "

"오셔서 힘들다고 다 가세요. 아줌마들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무릎 나가셔서 엄마들이니까, 남자들은 무릎은 덜 나가는데, 아줌마는 다 나가셔서 수술하고 그만 두고

수술 하고, 비전이 솔직히 없어요. 사람이 안 오니까. 복지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가 너무 심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도 제가 다녀봤지만 복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

"작은 회사는 복지가 아예 없죠. 5인 미만 7인 미만은 찾을 수도 없어요. 연차 그런 거는 찾을 수 없어요. 쓴다고 하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네. (연차에 대한)개념이 없어요. 그런 건 없다. 나중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막 따져요. 그런데 못 준다 이러니까 나중에 신고 할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런 게 좀 미약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70살, 80살 이런 사장님들이니까. 젊은층이 안 온다는 게 제일 관건 인 거 같아요."

-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고 그에 대한 지원으로는 허리, 무릎 보호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수그러서 앉아서 하시니까 담는 것도 쪼그려 앉아서 담고 허리를 수그러면 허리가 나가고. 어딘가 하나는 나갈 거다. 허리가 먼저 나갈래? 무릎이 먼저 나갈래? 이거는 양자택일 일 일 거 같아요."

"하루 종일 서서 하거나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자세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힘들고 앉아 있어도 힘들고. 섰다 앉았다 하면 더 나은데. 조그만 데는 다 그렇죠. 할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전부 다 해야 하는데..."

"사출이 아니라 와서인데, 철 이런 걸 하면 손목도 아대 하시고 아저씨들 다 그러세요. 철을 들었다 놔다 해야 하니까. 몇 천 개가 아니라 몇 만 개를 하루에 생산해야 하니까. 팔목 맨날 파스 붙이고 있고 냄새나고. "

"사무실이 흔들려서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돼서 날마다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쓰러져 자고 했어요. 좀 인이 배겼는데, 그래도 피곤하더라고요, 관리 해주시더라고요. 간호사 분도 오시고 다른 것도 관리 같은 거 주시고 가셔서.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의자 조그만 의자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대에 담아서 포장하고."

"그러면 무릎 보호대라든지, 허리 보호대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희 주시는 건 귀마개랑 마스크 그거 밖에 안 주셔서. 주면 좋죠. 일부러 아대 사서 하니까."

"홍보가 되면 직원들은 좋아하겠죠. 이거 아니어도 인쇄 업체에서 거기에 날마다 아프시고 무릎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제조업체도..."

- 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참여자 모두 모르고 있었으며, 사업을 알게 되더라도 일과 시간대라 이용하기 힘들거나 미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명만 들어봤지. 거기서 뭘 하는지는 들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센터도 이용 시간이 결국에 일하는 시간대잖아요."

"미리 미리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뇌혈관 심혈관 쪽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약간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이걸 활용하겠지만, 실제로 발병했을 때는 이걸 통해서 지원 받긴 어려울 거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취지는 좋은데 활용하기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 회사에서 대처를 하는데,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업장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방법과 이용자의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추는 방법, 안전일터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사업장에 가산점을 주어 우선 지원하는 방법,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 간식 박스에 홍보물을 첨부해 배포하는 방법 등의 의견을 제시함

"가기 전에 이런 걸 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오다 가다 읽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인식을 하고. 말로 들어서도 사업주가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면 공지 같이 이래서 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협회에서 팸플릿이나 이런 거를 주고. 안전 관련된 것도 포스트에서 보시면 붙여 놓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사업장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단지를 사업장에 팸플릿이나 이런 걸 비치하면 좋겠다."

"이게 20%면(자부담) 작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내 돈을 꼭 내야 한다고 하면 신청하기가 안 끌리긴 해요.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휴가비 지원사업도 했었지만 정부에서 사업주 반대가 나오니까 사업도 진행 안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려면 과감하게 이런 지원할 마음이 생길 정도의 과감한 정책이 되어야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을 잘 지키고, 그런 성과가 있는 업체 위주로 점수를 줘서. 어쨌든 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상용화되기 어렵습니다."

"식당이 밥은 꼭 먹고, 식당 사장님한테 설명을 하면 식당 사장님이 근처에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는 회사 업체들의 사장님들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런 공단에서 나온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식당 사장님이 하는 말은 들으니까."

"그렇죠. 식당이 마당밭이니까, 식당은 조건을 자기 동네 어디는 해당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식 박스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한 박스씩 안에 내용물 우편물 넣어서 보내주시면 간식도 먹고, 이러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거창한 정책 보다는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걸 소소하게 간식 박스라든지, 몇 십만원 짜리 몇 천만원짜리 해주네 마네 대신 선착순이네 이런 거보다 그 해당 사항이 내가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생기겠죠."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을 미끼로 보험 등을 판매하기 위한 불법 교육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형식적인 걸.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직원들이 일 해야지 6시간 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인만 받고 이런 식이죠. "

"맞아요. 팔고 이런 거 해요. 그거 하는 건 별로 없고 파는 거가 문제예요. 1시간이나 걸려요.", "보험만 1시간. 교육은 하나도 안 하고."

-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저금리 지원이나 낡은 기계 교체 사업 등의 규모를 키우면 좋겠다는 의견과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지원이나 절차 완화 등의 의견을 제시함

"개인이다 보니까 기계를 다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새로 해야 해서 기계 장치라는 게 일이 꾸준하게 있으면 되는데, 일이 꾸준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지. 사업주에서도. 시에서나 정부에서 일정 금액 투자를 해준다면 모르지,"

"제 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체인점 사업자, 사업가 서울시에서 커피 뽑는 머신 3천만원 짜리인가 그냥 해줬더라고요. 솔직히 사업 젊은 사업가, 젊은 직장인들 이런 걸 위해서도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저렴하게 하는 것도 많이 하고 하다 못해 신혼부부 대출 이런 게

많잖아요. 이쪽 계열도 그런 거처럼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탁상공론같이 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보험을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화재보험 이런 거 말고 부도가 났거나 떼이거나 이럴 때 대비해서 보험료가 비싸면 가입을 안 하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채권보험을 운영하긴 하는데, 절차라든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풍수재해 보험 같은 건 저렴한 비용에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보험 납부를 해야겠지만..."

Ⅵ. 전문가 인터뷰

□ 전문가 간담회 내용

: 아래 내용은 지난 2022년 11월 26일 5명의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순서나 형식 없이 안전·보건 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것임

- 노동자가 법이나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전문기관을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도 중요

"(정부지원과 관련해 현장에서 모르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이런 법도 있었어? 하는 게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 없이 살 수 있는 건, 정말 내가 일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건데, 이분들의 핵심은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할까? 두 가지니까 초점을 그 사람들부터 쪽 해주고 그럴 때 이제 길을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걸 모를 때 예방 차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 같은 데 연결해주면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건 해주는데, 보상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있는 게 대부분 금속가공업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서비스업이니까 심리적인 그런 게 많이 있을 거고, 그걸 근로자건강센터에 심리상담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이제 연결해주고 연결할 수 있는 걸 알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수용률이 낮은 이유는 서비스 내용에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

"사실 소규모 사업장 핵심은 마음을 안 여는 거거든요. 저희가 고르는 데도 이미 다 많은 서비스를 하는데, 수용률 36%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이게 다 누가 하든지 수용성이 낮다는 건 이미 문제인 거 같아요. (중략) 이미 잘했던 어쨌든 많은 걸 통해서 기획해서 하는 (정부지원)서비스가 사실 저는 현장감이 없다는 가설이 있긴 하거든요. (중략) 지금의 정부지원은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 그걸 던지는 현장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 소규모 사업장은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제·규제 위주의 접근보다 작은 것이라도 안전일터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위험성평가를 지원할 때 노동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안전보건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이 사업장에 법은 1,000개인데 다 지키라고 하면 못 지킵니다. 여기서 1~2개만 지켜도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하는 사업주를 찾아서 발굴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나은 거지. 50미만의 안전보건공단에서 밀착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 하지만 이거 하고 있으면 사업장에 가서 사인만 받아 와요.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업주가 오하려 싫어하거든요. 자기 일하기 바쁜데, 거기 챙기는 건 우리가 지원하려고 해도 강제적으로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강제적인 거기 때문에 오하려 싸움이 되고 사업주가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오하려 하시려고 하는 사업주, 두 가지 포커스를 잡아야 하는데... 그리고 또 OO님께서도 위험성평가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모르는 회사 태반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게 되면 위험성평가를 가셔서... 변화 되는 걸 봐야 하거든요, 실제로 변화되는 걸 보면 사업주도 와 닿는 게 틀리고 근로자도 틀립니다... 그거 제가 한 3년 전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위험성평가에서 그걸 반영해서 법으로 해서 자원을 마련하게 하는 부분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결국에 산업안전관리에서 인정을 해주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서비스업은 전혀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안전관리비가 적용되는 건 오로지 건설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야지 연결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위험성 평가를 해주면서 거기에 개선하는 조치 사항에 반드시 근로자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로자가 생각하기에 이런 이런 게 필요했는데, 더 잘 알아야 솔직히. 우리 전문가들보다. 자기가 원하는데 회사에 돈 없는 거고, 회사에서 힘들게 돈 버는 거 압니다. 그런데 불안하게 항상 불안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근로자분들도 알고 있지만 불안하게 일하고 있지만 불안한 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내 돈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장

의 위험성을 발굴하기 위한 소통이며, 노동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찾아보며 안전보건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

"그러니까 저희가 20군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학습자 회피자로 나눠봤어요. 처음에 엄청 회피자였던 분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맥락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위험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장의 위험성을 발굴하고. 여기서 법을 천 가지를 다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걸 발견해서 우선순위 첫 번째를 하게 해요. 이 방법론이 가장 중요한 게 대화라고 나와 있고, 연구에도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앱을 해도 앱을 볼 시간이 없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대화를 하니까 어떤 사업장이 회피자였는데... 우리의 필요를 물어보는 게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법이 이거 있는데 이거 하고 계시냐?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저도 따라 다녀 봤지만, 30분만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50가지 정보를 뽑아 내더라고요."

"그렇게 못한 건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조사해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부 시범사업 바꾸라고 하는 건데, 가서 리스크하고 유해물질 관리하는 작업을 해주거든요. 너네는 이런 이런 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고쳐라 라든가, 이걸 대화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식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외 공부 같은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효과적으로. 컴팩트하게 활동가 양성해서 하면..."

"위험성평가도 자기네들이 더 잘 알잖아요. 뭐가 위험한지. 조그만 데는 체크리스트를 해서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뭐가 위험하고, 큰 데는 전문가가 할 수 있지만 이런 데는 전문가가 필요한 데도 있을 거예요. 환기 전문가나 이런 거는 구분을 해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 서비스업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게. 위험한 데는 검진이나 측정을 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 좀 진행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처음에 가서 전체 스토리를 해서 가르쳐 줘요. 여기서 뭐 사업의 어려움이 없으세요? 모든 건 처음에 감독관이랑 제일 먼저 보는 게, 제일 공감하시는 그게 뭐냐 하면 사업장에 알아 듣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네 이런 법에 대한 교육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소규모 사업장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측정 검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효능감을 느끼게 돈을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돈이라도 그렇게 써서 의미가 있으면 그걸 공 굴리듯이 지금 여기는 우리가 맥락이 중요한 분야인데, 너무 복잡한 요소가 많으니까 실제 효능감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효

능감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계속 돌려야 하는 사업이 저는 안전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고 나옴으로 그냥 다 체크 박스..."

- 안전·보건 문제를 사업장 자율로 맡기면 소규모 사업장 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게 제가 한 디딤돌만 아니라 모든 패턴이 다 공급자 위주 법 준수 위주로 가서 가르치려 하고. 너네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거 돈 들여 좀 하면 돼. 다 의미가 없다는 걸 느끼면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중략) 그런 사업장이 기존에 보고서에 보면 80%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 하면 열심히 반응하면서 맞으시는 분은 그나마 환경이 좋은 사업장이예요.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진짜 열악한 데 있잖아요. 우리 정말 가야 하거든. 거기 가서 작업하는 컨설팅 해드리고 뭔가 바꿔 드려야 하거든. 그런데 절대 철통 수비. 절대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제 생각에는 이걸 사업주 자율로 남겨 놔서는, 소규모 사업장 내에서도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하고 검진하고 이런 것들 몇 가지 다 규모 상관 없이 해야 해요. 물론 그렇지만,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의 책임자가 담당하는 사람이 20인 이상인가? 20인 미만은 체계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체계, 교육도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는 구석을 일단 메우자. 메우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을 확 바꿔야 해. 진짜"

- 건수 위주로 평가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실제 산업현장의 사망자나 재해자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지원 모델의 방향을 수정해야 함

"지금처럼 건수 위주로,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돈이 많이 없거나 그런 거보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봤던 효능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정부 지원제도를 바꾸는 거. 아까 ○○○님 말씀도 맞긴 한데, (건수 위주의 평가를) 30년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나 효능감을 못 느끼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바꾸는 게 먼저고..."

- 사업주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 관리된다는 인식이 있어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안전에 관련된 광고 및 홍보가 늘어나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어 바람직

"사업주는 대부분 정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사업장이 관리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사람 인식 바꾸기 전까지 안 바뀐다고. 그 당시에 그걸 안 바꿨는데, 정말 많이 바뀐 게, 요즘에 안전에 대한 광고 홍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국민적으로 다 알게끔 만든 시스템. 그게 그 전부터 됐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옛날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바뀐 거라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 원청의 하청에 대한 영향력이 정부 영향력보다 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원청이 하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원청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정부 기조가 건설회사 발주자쪽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영세사업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무리 정부 기관이 잘 하더라도 정부 기관은 벌금 내면 끝이에요. 발주자는 돈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거길 건드려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 기조에서 도급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50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정부 기조는 그런 부분은 맞는 건데. 그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모르니까."

"○○전자에서 센터장이라고 해서 전무급 이상 회의 뒀다 하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차만 4~5대가 떠요. 그 사람이 직접 현장을 갑니다. 그걸 보고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그 사람이 움직이면 사장이든 사업주는 당연히 움직이는. 상생이라는 관련 법 때문에 공정거래 때문에 1차까지는 ○○에서 건드릴 수 있지. 2차 3차는 못 건드릴어요. 1차가 또 2차를 건드리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전자는 다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질문이 뭐냐 하면 원청이 안 좋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청한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건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안전 보건의 굉장히 복잡한 요소의 3차원 고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존권이 되어야 바뀌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사업장. 아까 서플라이 체인 했지만 사업주는 이윤을 머리 속에 생각해서 과태료 내는 게 나아 이렇게 되고, 어차피 그렇잖아 요. 그게 나한테 이득이니까. 이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플라이 건드리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겁이 없으면 사실은 관심조차도 안 갖기 때문에 법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소규모 사업장을 해 보니까 OO가 잘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청업체 대상으로) 워딩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해주더라. 한 번 와서는 어차피 어디나 마찬가지로 점수를 낮게 받으면 납품 피드백이 있어서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서 처음에 속인다 말이죠. 그런데 OO는 2~3년 계속 해주면서 '뭐가 힘드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많은 걸 하고 다니는데 유일하게 제도에 있어서 성공 스토리..."

-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즉각적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영향을 줄 수준의 패널티 부과 필요
 - 개선의 의지가 없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무조건적 보호보다는 강력한 법적 제제도 필요

"분위기를 바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걸 사람을 잡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던 사람한테 돈으로 손해 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나쁜 사업장이면 어쨌거나 찾아서 이 사람 개선할 여지가 없어서 계속 납품을 하면 문을 닫아야지 맞는 거지. 그런 일 많이 있어요. 그 전에도 똑 같은 회사가 화학공장인데, 벤젠에다 TDI를 합성하는데 여기는 측정을 하면 벤젠 농도가 10배 차이가 나요. 여기는 영업정지시켜도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업주의 입장을 그렇게 봐 줄 필요도 없어요..."

"영세사업장 입장만 봐주자면 프레스에서 우리가 이제 확동식 유압식이 있어요. 확동식은 한 번 떨어지니까 손가락 잘리는 거야. 유압식은 딱 하면 센서가 쓸 수 있는 건데, 확동식을 다 없애라. 다 없애는 조건으로 하고 유압식 하는 걸 다 지원을 해줬어요. 안전공단에서, 다 없는 줄 알았어. 내가 저기 어디 경기동부 어디를 갔더니. 옆에 있는 거야. 없애야 하는데 있는 거야. 그런 건 나는 볼 것도 없이 사업주를 잡아내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중략) 무슨 문제가 되나 하면 그 사람은 단지 낮은 인건비로 사업장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안전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행정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문제가 있고 자기가 궁금한데 해결을 못 하는 사람들이야 오픈을 해서 도와줄 테니까 그런 건 연결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안에 저항하는 데 하나는 시간 손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주가 제일 싫어하는 건 근로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니까. 내 시간 타임에 가는 걸 하는 건 그건 또 협의가 되어야 하고, 정말 사업장이 소규모인데,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감독 관청에 알려져 감독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가 필요해요. 너무 소규모 사업장 5인 미만은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거에 빠져 버리면 거기 일하는 노동자는 점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은 그러지 않아도 안전 보건 잘되고 있는데, 예외시켜 주고, 먹고 살기 바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도태되고 고발 조치도 하시고 법적 책임을 많이 얘기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사업주가 겁을 내야지.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주장을 못 해요. 그럴 수준도 아니고, 결국은 사업주가 바뀌는 수 밖에 없는데..."

○ 소규모 사업장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 인력 미흡

"사업장에서 우리를 거부하다가 공단에 연락을 해서 겨우 겨우 욕을 먹으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사장님은 자기는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을 진짜 몰라요. 그래서 공단에 연락을 했네. 기술지원 해달라고. 공단에 아는 사람이 없네?... 지금 문제가 소규모 사업장 관련해서는 일단 정말 모른다. 보건 관련해서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떠 드려야 겨우 겨우 그걸 드실 수 있는 거지. 그냥 하세요 이러면 절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소규모 사업장에 알맞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조차도 없다..."

○ 서비스 지원 중간 조직의 경우 컨설팅 목적으로 사업장 현장 지원을 하고자 하나 사업장 출입 권한이 없어 노동부나 공단의 협조를 매번 받아야 하고 때로는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음

"...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사업장 같이 진짜 열악한 사업장 있잖아요. 계속 걸리는 사업장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그게 네트워크가 안 돼요. 그렇게 해줘야 한다 생각 안 하죠. 그런 사업장은 바뀌어야 하잖아요. 소규모 사업장은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야 해요. 클린 사업장 이런 거 연결해서 우리가 도와 드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면 클린 사업장에서도 뭔가 연결이 되게, 딱 연결이 되는 이걸.."

"공단도 사업장 출입 권한이 없어요. 항상 공단이 노동부에 얘기를 하면 노동부에서 안 하는 거예요, 노동부한테 얘기 듣고 공단이 얘기하면 그쪽에서 편의를 봐 준 거지. 우리는 들어갈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들어간 게 노동부에서 벌칙금인가 때렸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갔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거부, 그 다음에 공단에서 연락을 하니깐 그때는 오케이 한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무슨 상인취급하고 그나마 말이 통하는 게 공단이고 그 다음에 노동청 이게 좋은 말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해요."

"감독 기능 가는 건 약간 조심해야 할 거 같은데, 저희는 감독이 아니고 컨설팅이거든요."

- 일부 지자체에서 위험성평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현장 컨설팅이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된 사례가 있듯, 지자체 협조를 통해 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

"안전공단 노동부 이걸 너무 먼 얘기고 그분들에게는. 구청이 제일 가깝고 가장 영향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랑 같이 사업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인허가다 보니까 건축 다 지자체에서 권한이 있어요. 다른 권한. 지자체에서 시청에서나 나온다 하면 얼마든지 고용부도 부담이 되겠죠. 지자체는 여러 가지 통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산업안전은 안 하고 있지만 감독이나 이런 권한은 없지만 그걸로 해서 공문을 해서 가는데, 확인해서 갑니다. 지도를 하러 갑니다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몇 군데 다니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가 움직이는 게 그 전에는 행사장이나 자문단 형태로 해서 행사장이나 이런 쪽으로 갔지만 산업안전도 가요. 중대재해처벌법 국가나 지자체에서 우리가 행정 했던 내용들을 개선 했느냐,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한 데는 안 맞지만, 관리하는 회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회사가 변화되는 걸 많이 보니까요... 영주시에서 동양대학교하고 위험성평가 인증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데, 사업장 말씀대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하면서 100만원 정도 안전관리 해주고, 안전관리 비용을 해

취요, 일부러, 그런 컨설팅 사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업주는 느끼는 거예요. 인증받고 나서 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받으면 산재 감면도 받고 또 현장에서 개선하는 게 눈에 보이고. 내가 뭘 했는지, 뭘 개선해서 근로자 면담을 해서 처음에 얘기한 그런 부분,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담당자가 아는 분이어서 같이 만들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주가 효능감 느끼는 데에(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면 있다는 거죠."

○ 사업장 규모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소득이 낮을 때 단계, 중간 단계 다른데, 지금 큰 사업장들은 옛날에 처음 할 때는 아주 못 살 때는 생산만 중요해요. 생산만 해서는 안 팔려. 그러면 품질이 좋아야 해요. 그리고 그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품질 좋아서 그 다음 단계는 안전도 삶의 질과 관계 있는 거고, 자기 직원들하고 그 정도가 대기업에 인식이 되는 건데, 5인 이하의 생존의 문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빵 찢었는데, 지금 다 유효기간 지난 거 찢다 하는데,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 지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건데, 소규모 사업장 5인 이하의 전세계가 다 똑같아요. 거기 말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본 생활에 충족하게 급여가 되지 않는 한 대부분 최저임금이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생존과 안전의 갈등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 거기서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더 좋게 해줘야 하고 당장 여기를 막 지금 여기가 내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수준이 이건데 그렇게 못 가니까 따라가게 한다 이런 건 좀 힘들 거라고. 어디든지 힘들 거라고. 단계적으로 그 안에서 자기네 생각하는 위험한 요인 문제가 있는 거 이걸 해결해주는 단계로 나가면 그게 해결되면 하나씩 올라간다는 거죠."

○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 영리 목적의 불법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센터와 같은 중간지원단체가 브로커의 역할을 해야 함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런 브로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브로커가 자기 양심이,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는 안 되고. 공공기관에서 진짜 사업주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지"

"지원센터에서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다고 하면 사업주는 그걸 믿고 같이 가는 게 소규모는 입속에 떠 넣어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떠 넣어줘야"

하는데. 떠주는 사람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거죠. 금액이나 모든 정보를 알고 하다 보니. 그런 브로커 없애려고 하면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어느 기관이나 지원하는 센터가 있다면(브로커의 역할을 한다면) 훨씬 달라지겠죠."

Ⅶ. 부록

1. 질문지

1) 사업주용 질문지

1. 정부,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지원책을 알고 있는지?

※ 업종 별 적합한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

<안전공단, 서울시 안전보건 지원사업>

- ① 클린사업장 조성사업(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기술, 자금, 교육 지원)
- ②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 ③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지원
- ④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대상)
- ⑤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 ⑥ 안전투자 혁신사업
- ⑦ 직종별 건강진단
- ⑧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 ⑩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 ⑪ 산재예방 요율제(50인 미만, 위험성평가(20%) 또는 사업주교육(10%), 근로시간 단축 10%)
- ⑫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서울시,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2억5천만원 이하 : 1일 86,120원)
- ⑬ 서울시 ILO 45001 인증 지원사업

1-1. 안다 ==>

- (1)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습득했는지?
- (2) 신청 후 지원 경험이 있다면 장·단점은 무엇인지?, 개선되어야 할 점은?
- (3) 아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어떻게 하면 지원 신청을 할 것인지?

1-2. 모른다 ==> 설명 후 질문 ==>

- (1) 수용 가능한지?
- (2) 수용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수용할 수 있을지?

2. 지원사업을 어떻게 홍보하면 사업장에서 가장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인지?

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 3-1. 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 3-2. 모른다 ==> 센터에서 지원을 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준비하겠는지?
4. 산재 예방을 위해 센터, 정부, 지자체 등에 바라는 점은?

※ IT사업주 질문지

1. 회사 운영의 어려움 청취
 - 1-1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지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2. 과로와 건강문제
 - 2-1. IT업종의 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2. 과로 문제와 관련해 회사차원에서 사업주 본인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이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거나 구상 중이신 복지제도가 있으실까요?
 - (Y)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 (N) 운영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 3-3. 정부나 지자체, 센터에서 사업주와 종사자분들의 건강증진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3. 직무스트레스와 건강문제
 - 3-1. 대표를 포함한 회사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 3-2.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 회사차원에서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Y)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N) 관리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 3-3. 정부나 지자체, 센터에서 사업주와 종사자분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4. 중대재해처벌법과 휴게시설 의무화 조치
 - 4-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 (Y)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 (N) 공단이나 센터에서 지원을 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준비하겠는지?

4-2.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 되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 (Y)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 (N)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정책 설명 후 내년 지원책 안내
(그 밖에 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5.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현황 안내

○ 정부 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노동자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 서울시심리지원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국가트라우마지원센터

○ 정부 지원사업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사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알고 있다면

-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습득했는지
- 이용 경험이 있다면 장·단점은
-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았다면 왜 이용하지 않았는지

2) 모른다면

-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 이용하기 힘들다면 왜 인지

○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기관이나 지원 사업 등이 있음에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해야 널리 알릴 수 있을까요?

○ 워크스테이션 지원 (사무환경 개선 지원)

- 사무직 근로자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 신체구조에 따라서 책상이나 의자 높낮이 조절 및 컴퓨터 모니터 위치 조절 등

2) 노동자용 질문지

1. 정부,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지원책을 알고 있는지?

※ 업종 별 적합한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

<안전공단, 서울시 안전보건 지원사업>

- ①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2페이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② 직종별 건강진단(5페이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 ③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7페이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④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12페이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서울시,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2억5천만원 이하 : 1일 86,120원)

1-1. 안다 ==>

- (1)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습득했는지?
- (2) 사용 경험이 있다면 장·단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은?
- (3) 알지만 사용 경험이 없다면 이유는? 어떻게 해야 사용할 것인지?

1-2. 모른다 ==> 설명 후 질문 ==>

- (1) 수용 가능한지?
- (2) 수용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수용할 수 있을지?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법적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안전공단, 서울시 안전보건 지원사업>

- 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작업중지권*
- ② 보호구 지급 요청 및 착용 준수
- ③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법정 의무교육
- ④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착

1-1. 안다 ==>

- (1)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습득했는지?
- (2) 사용 경험이 있다면 장·단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은?
- (3) 알지만 사용 경험이 없다면 이유는? 어떻게 해야 사용할 것인지?

1-2. 모른다 ==> 설명 후 질문 ==>

- (1) 사용 가능한지?
- (2) 사용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사용 또는 요청할 수 있을지?

3. 지원사업이나 법적 내용을 어떻게 홍보하면 가장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인지?

4. 산재 예방을 위해 센터, 정부, 지자체 등에 바라는 점은?

※ IT노동자 질문지

1. 업무상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

○ 사전 질문

- 평소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1~10점으로 표현한다면 몇 점인가요?
- 주로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① 조직 문화(직장 내 괴롭힘 등) ② 근무 환경(과도한 업무량 등) ③ 기타

○ 본 질문

1) 조직 문화 문제

- 조직 문화가 문제라고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2) 근무 환경 문제

- 근무 환경이 문제라고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 IT종사자의 과로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규정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 문제.

3) 기타

- 그 외에도 업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있으신가요?

4) 이런 문제들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5)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회사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요?

- 사내 심리지원 프로그램, 고충 해결 부서 등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도움이 되는지.

- 이런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정부, 지자체, 센터에 바라는 점.

2. 정부 지원책 및 관련 기관 안내

○ 정부 기관

- 노동자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 근로자건강센터

- 서울시심리지원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국가트라우마지원센터
- 정부 지원사업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사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직장내괴롭힘 상담 센터(1522-9000)
- 기타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2.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재정지원사업 현황

※ 자료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시내용 발췌 정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현황

2022년 6월



동북권 ·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 차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1
2. 건강 디딤돌 사업	7
3.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지원	12
4.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17
5.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19
6. 안전투자 혁신사업	20
7. 직종별 건강진단	23
8.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25
9.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30
9-1. 안전분야	30
9-2. 화학분야	31
9-3. 보건분야	33
9-4. 건설분야	35
9-5. 서비스분야	36
10.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39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목적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위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클린사업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22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노동부·공단이 직접 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건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작업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패트를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 Q-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클린사업장 인정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지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 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 업종 등)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 지원 불가 *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신속지원(Q-Pass) : 사업장 당 70만원까지(1회) ※ 사업장 당 투자금액의 70%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건설현장 당 3,000만원까지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단, 공사금액 3억미만(65%), 20억원 미만(60%)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 고위험 업종 : 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각종시멘트 제품제조업(21856),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기타화학제품제조업(20912),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화학비료제조업(20903)

◆ 클린사업 추진절차

클린사업장 인정

●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Track1(기존방식)



Track2(Quick-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지원설비품목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고정식 가드,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손쳐내기식 안전장치, 수인식 안전장치,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방지장치 등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끼임방지시설(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 추락방지 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방호울공사 등)
- 고소작업대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 및 복합가스농도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조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사회적 이슈품목

2.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등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포함 원격제어기 등)

3. 추락방지 안전시설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

※ 보조대상 제외

- ①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
-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④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
- ⑤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시스템비계 :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 안전방망 : 플라잉넷,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추락방지망
- 사다리형 작업발판 : 최대높이 3.5m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트인증품),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해 현장 당 2개 이내

2. 건강디딤돌 사업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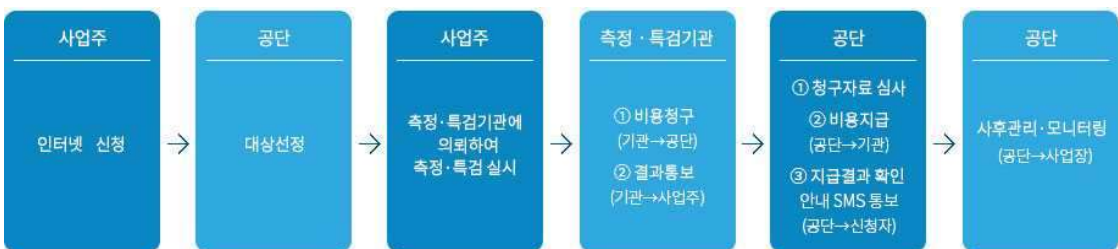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건강 디딤돌」 사업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 사업절차



- 사업주 : 인터넷 신청
- 공단 : 대상선정
- 사업주 : 측정·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특검 실시
- 측정·특검기관
 1. 비용청구(기관→공단)
 2. 결과통보(기관→사업주)
- 공단

1. 청구자료심사
 - 2.비용지급(공단→기관)
 - 3.지급결과 확인 안내 SMS 통보(공단 -> 신청자)
- 공단
1. 사후관리·모니터링(공단→사업장)

◆ 지원대상

1. [작업환경측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시행규칙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참고>3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30인미만 여부 판단

◆ 지원금액

1. [작업환경측정]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 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 (한도 금액: 사업장 당 100만원) ※신규 측정사업장 : '19년 부터 측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측정비용*의 70%를 지원 (한도 금액: 사업장 당 40만원)

* 측정비용 : 공단 산정금액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비용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유해인자 별 제1, 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각각 연 1회씩 지원 가능하므로 이미 지원 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함 (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 유해인자 별 건강진단 실시 근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불가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 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3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http://total.kcomwel.or.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2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대상선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3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또는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발신 불가)
- 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공통]**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출력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결과확인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하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수검자의 검진 유해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 등을 검진 기관에 적극 제공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건설일용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비용청구 및 비용지급

- **[작업환경측정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비용 청구
- **[공단]**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비용지급결과 통보 및 설문조사 실시

- **[공단]**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 비용지원 사업의 만족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 시 SMS 수신 불가)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모니터링]**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052-7030-500,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052-7030-500

3.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지원

◆ 목적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 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 용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 ☞ 2022년 "제조업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용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고정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

◆ 지원절차



1. 자금신청 → 2. 투자계획확인 → 3. 자금지원 심사 → 4. 시설투자 → 5. 개선완료 확인 → 6. 투자확인서 발급 → 7. 은행대출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2년 1월 3일 ~ 재원 소진 시까지('22년 재원: 3,563억원)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 접수방법 :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대표전화: 전국 1544-3088)

◆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

위로 할 수 있음

- 「용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
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
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84조, 제89조 및 영 제70조, 제74조, 제77조」 또는
「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
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영 별표20) 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 등
- ※ 일선기관별 용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고(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알림마당)

◆ 지원대상 품목 및 유의사항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읍선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 프레스, 공작기계(CNC 머시닝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
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 유의사항

- 법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 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 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1부(공단 소정양식)
-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 세부 제출서류(신청서 등)는 자료실 게시 양식 참조

○ 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 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 ☞ (필수) 원가계산전문기관의 공사(제조)원가계산서 1부(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 추진 흐름도



4.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 목적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작업환경(작업관리)와 관련된 상담, 안전보건교육, 이동 건강상담 등

◆ 구성 인력 및 이용 요금

- (작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여 이용 요금은 전액 무료

◆ 2021년 현재 이용 가능한 센터 및 분소 이름(운영기관명)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인천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광주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대구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경남근로자건강센터((주)터직업환경의학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울산근로자건강센터(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부천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충남근로자건강센터(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구미강동병원)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부산근로자건강센터(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대전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경산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전주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강원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제주근로자건강센터(제주 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춘길 82
충북근로자건강센터((사)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성남분소(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김포양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대구달서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지하
완주분소(전주근로자건강센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창원분소(경남근로자건강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평택분소(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남양주분소(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군포분소(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148번길 17
구미분소(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영천분소(경산근로자건강센터)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광주광산분소(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
대구달성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양산분소(부산근로자건강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길 2
김포고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58번길 105-1
서울중구분소(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서울성동분소(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
울산북구분소(울산근로자건강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인천부평분소(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춘천분소(강원근로자건강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연동분소(제주근로자건강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아산분소(충남근로자건강센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5.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 목적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찰 소방관 및 응급서비스직 종사자 등이 이용 가능
-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관리,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 구성 인력 및 이용 요금

-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여 이용 요금은 전액 무료

◆ 2021년 현재 이용 가능한 센터 및 분소 이름(운영기관명)

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센터,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직업트라우마센터, 울산직업트라우마센터, 충남직업트라우마센터, 전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제주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북부직업트라우마센터 등 근로자건강센터 내 설치 운영

6. 안전투자 혁신사업

◆ 안전투자 혁신사업이란?

사망사고 발생 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1. 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 카고형 이동식 크레인('09.9.30. 이전 생산 기계)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09.6.30. 이전 생산 기계)
- 권동식 리프트 보유 사업장

2. 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처리업 중심)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 사업 목표 및 예산

- 사업 대상 : 15,487대, 개소
- 지원액 : 9,084억원

◆ 지원 범위

- 설비 제작 비 등 사업비 50%
 - 사업비 50% : 기계·설비 구매, 제작 및 설치비, 기존 설비 해체 비용 등
- 사업비 등 지원 범위 및 조건

구분	①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교체	② 리프트 교체	③ 뿌리공정 개선
교체용량	보유 용량 대비 교체 용량 제한 없음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
지원금액	옵션과 관계없이 시장가격의 50%		최종 원가정산기관 정산 금액의 50%
지원대상	이동식장비 실소유자 대상 ※ 임대 및 지입차주 등 참여 가능 (20.12.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공장 등 소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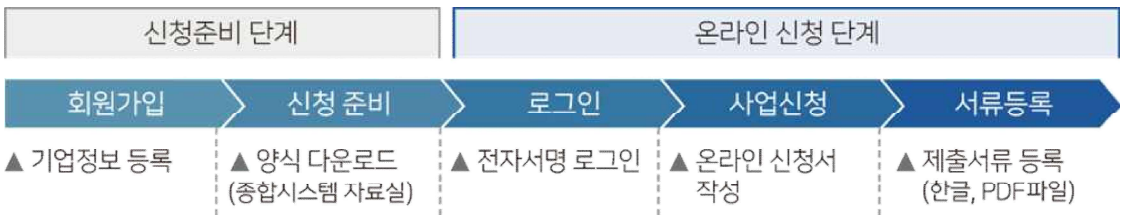
※ 투자기업은 지원 사업별 제출서류 일체를 사전 준비하여 「안전투자 혁신 사업 종합 운영시스템(이하, 종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 기간은 공단에서 예산,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로 나누어 지정

◆ 신청방법

○ 종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anto.kosha.or.kr>)

○ 문의처 : 1644-4555



◆ 제출 서류

1. 공통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2) 산재보험 완납증명원(발행 후 3개월 이내)
-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
- 4) 견적서
- 5) 정보 활용 동의서(원본)

2. 위험기계

- 1) 자동차등록증(사본)
- 2) 자동차등록원부(사본)
- 3) 기계장치 명판이 훼손되어 모델명 및 제작연월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작증명서 첨부(자료실 참조)

3. 뿌리업종

- 사업계획서

-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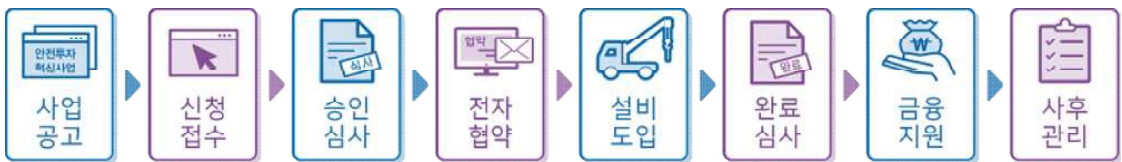
※ 뿌리산업 사업계획 주요 내용: 사업목표, 개선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리스, 할부, 보조 중 선택) 사업추진 성과, 기타

◆ 지원 방식

○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금융 선수금 또는 보조금 지원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금융 선수금 방식에 한해 진행

○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처리절차 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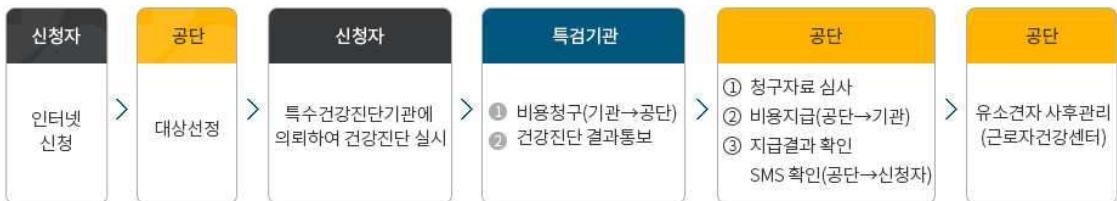


7. 직종별 건강진단

◆ 목적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없는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온라인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자)의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

◆ 사업절차



◆ 지원 대상

- 환경미화원(30인 미만)
 - ※ 3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30인 미만 여부 판단
-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배송기사 · 화물차주
- 건설기계운전자

◆ 지원 금액 : 전체 건강진단 비용의 80%(1·2차 항목)

- 환경미화원 :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 배송기사 · 화물차주 : 뇌 · 심혈관질환
- 건설기계운전자 : 호흡기질환, 뇌 · 심혈관질환

◆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 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 대상 선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직종, 사업장 규모 등)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확인안내를 SMS로 전송
 - ※ 비용지원 신청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건강진단 실시
 - ※ 출력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신청결과 확인
 -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 ※ 직종별 건강진단 참여기관 현황은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을 참조

◆ 비용 청구 및 지급, 문의처

- 건강진단 결과는 공단 K2B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 비용 청구
- (공단)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문의처 : 건강센터운영부 김나은 052-703-0652

◆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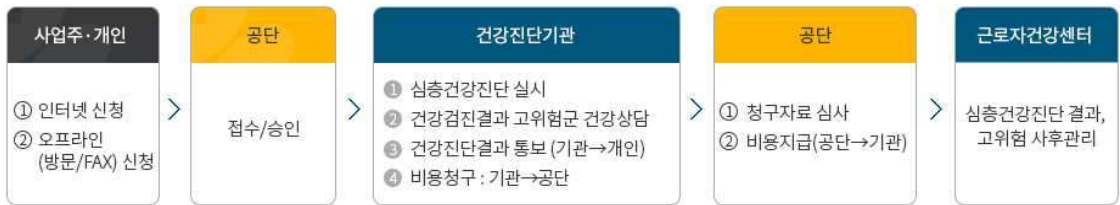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실시

8.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목적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에게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뇌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노동자에게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실시

◆ 사업절차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검진기관 방문/FAX) 신청
-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
 - ※ 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 대상선정

- 신청한 검진 희망자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SMS 발송하고, 지원대상인 경우 검진 희망자 별로 건강진단 안내, 검진 시 준비사항, 유의사항 등을 SMS 전송
 -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
 - ※ 확인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 심층건강진단 실시

- (예약) 신청 시 입력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 일정 예약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검진 실시
- (준비)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존 건강진단결과 일반·특검·직종별 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어플리케이션(앱),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등) 중 1개를 사전 준비
- (방문)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에 확인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는 과로사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② 공복혈당 126mg/dl 이상
- ③ 총콜레스테롤 \geq 240mg/dl 또는 LDL \geq 160mg/dl 또는 중성지방 \geq 200mg/dl
- ④ 비만(BMI \geq 30) 또는 복부비만(남 \geq 90cm, 여 \geq 85cm)

-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3)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 4)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 뇌혈관, 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또는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해당 장기(뇌·심장) 치료 중에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검사항목

기본검사와 선택검사로 구분하여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검사가 가능한 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1. 기본검사

- (지원금액) 170,400원(기본 검사비용 213,000원의 80%)
 ※ 자부담금 42,600원(213,000원의 20%)

- (검사항목)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

구분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검사항목	① 문진 및 의사상담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① 신체계측 (키·몸무게·허리둘레·체질량지수) ② 혈압 측정	① 공복혈당 ② 당화혈색소(HbA1c) ③ 총콜레스테롤 ④ HDL콜레스테롤 ⑤ 트리글리세라이드 ⑥ LDL콜레스테롤 ⑦ 혈청 크레아티닌 ⑧ 신사구체여과율(e-GFR) ⑨ 호모시스테인	① 요단백 ② 미량알부민	① 경동맥 초음파 ② 관상동맥 비조영 CT (석회화 점수) ③ 심전도

2. 선택검사

- (지원금액) 선택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 (지원대상)

- 1) 만 55세 이상 고령자
- 2) 총콜레스테롤 $\geq 310\text{mg/dL}$
- 3) 고혈압 $\geq 180/110\text{mmHg}$
- 4) 공복혈당 $\geq 126\text{mg/dL}$ 또는 당화혈색소 $\geq 6.5\%$
-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고위험 이상
- 6)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발병위험도 5% 이상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항목) 희망자에 한해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기본검사 비조영→조영으로 대체)	뇌혈관 MRA
인정금액	12.5만원	12.5만원	20만원
지원금액	10만원	10만원	16만원

◆ 사후관리

1. 건강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초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 주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건강진단 의사가 인정하는 자
 - (희망자) 심층건강진단 후 근로자가 전문의 상담을 희망하는 자
 - ※ 2021년도에 심층건강진단을 지원받은 근로자도 가능
- 지원방법 :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 상담 실시
- 지원금액 : 회당 20,000원
 - ※ 공단이 건강상담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비용지급
- 연간 지원횟수
 - (초고위험군) 1인당 최대 10회, (희망자) 1인당 최대 5회
 - ※ 지원주기는 1개월 이상

2. 추가검사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진단결과, 뇌심혈관질환이 의심되거나 발병 우려가 있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건강진단 의사(전문의)가 인정한 자
- 검사항목 : 심층건강진단 선택검사 항목 중 건강진단 의사(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

※ 건강진단 결과, 질환이 의심되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초 건강진단 시 선택검사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불가

- 진단기관 : 심층건강진단기관 중 해당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실시
- 지원금액 : 선택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뇌혈관 MRA
인정금액	12.5만원	20만원	20만원
지원금액	10만원	16만원	16만원

3.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자
- 지원방법 :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상담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 영양, 금연 등 생활 습관 개선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상담 실시
 - 공단에서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 중 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심층건강진단 실시
 - ※ 지역별 심층건강진단 실시가 가능한 기관은 공지사항에 게시

4. 문의처

-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 052-703-0649

9.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9-1 안전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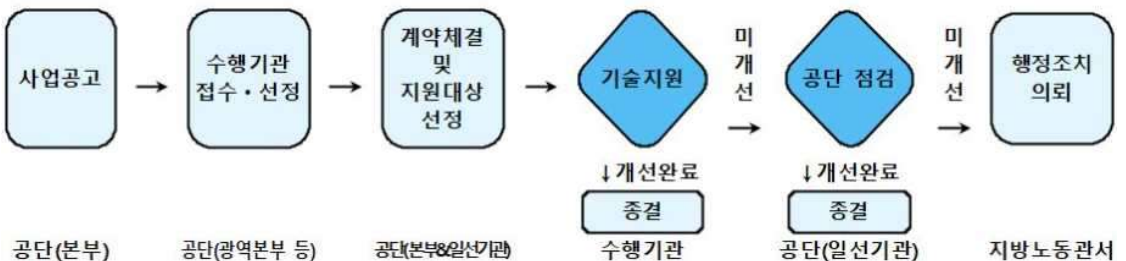
◆ 목적

안전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끼임」 중점)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사업물량 : 95,000회)

◆ 사업 추진방향

- 고위험 설비 · 작업 · 공정 등을 보유한 업종 · 사업장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우선 선정 · 지원
- 사업장 실태평가에 따른 위험수준별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사고사망 직접원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진 리더십 · 근로자 참여) 중점지원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사업 추진절차(분야별 공통)



◆ 지원 내용(사업장당 최대 4회 지원)

○ 사망사고 직접원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자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 사망사고 직접원인

①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② 3대 안전조치 지원** ③ 인력·설비·물질 등 사업장 현황 파악 ④ 재해원인분석 및 대책제시 등

* 사고사망 · 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 ① 정비·보수 작업 중 끼임 ② 크레인 작업 중 충돌·끼임 ③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④ 지게차 작업 중 전도·충돌 ⑤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에 상응하는 기술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안내
※ 정비 · 보수작업 중 끼임 사고예방 중점 지원

** (3대 안전조치) 사업장 3대 안전조치 기술지원

※ 3대 안전조치

-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 · 점검시 운전정지 등
-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50인 미만까지 확대 시행('24년 1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의 참여 등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① 경영자리더십 ② 근로자의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 목적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있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화학설비 및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화학사고 재해 예방에 기여 (사업물량 : 30,000회)

◆ 사업 추진방향

- 고화학물질 제조 · 취급 · 유통 · 설비 보유 사업장, 화학업종 등 화학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 우선 선정
- 유해 ·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 폭발 · 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원 실시
- 사업장 실태평가에 따른 위험수준별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사고사망 직접원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진 리더십·근로자 참여) 중점지원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지원 내용(사업장당 최대 4회 지원)

○ 사망사고 직접원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자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 사망사고 직접원인

①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② 3대 안전조치 지원** ③ 인력·설비·물질 등 사업장 현황 파악 ④ 재해원인분석 및 대책제시 등

*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 ① 화학설비 화재·폭발 ② 정비·보수 작업 중 끼임 ③ 크레인 작업 중 충돌·끼임 ④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⑤ 지게차 작업 중 전도·충돌 ⑥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에 상응하는 기술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안내

※ 정비 · 보수작업 중 끼임 사고예방 중점 지원

** (3대 안전조치) 사업장 3대 안전조치 기술지원

※ 3대 안전조치

-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50인 미만까지 확대 시행('24년 1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의 참여 등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① 경영자리더십 ② 근로자의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9-3

보건분야

◆ 목적

자율 보건관리가 미흡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질병 및 질식재해 예방에 기여 (사업물량 : 71,590회)

◆ 사업 추진방향

- 종합적 보건관리 기술지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진 리더십 · 근로자 참여) 중점지원
- 사업장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통지원+테마별 지원으로 사업장 맞춤 서비스 제공
-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평가에 따른 위험수준별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지원 내용

○ 공통지원 + 테마별 지원으로 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원

※ 대상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테마별 기술지원 실시

○ 공통지원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안내·지원 ② 안전보건교육 ③ 안전보건제도 안내 ④ 방역관리 지원 ⑤ 위험성평가 등 ⑥ 사업장 실태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50인 미만 까지 확대 시행('24년 1월)되는 중대 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주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의 참여 등의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경영자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②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기술지원과 병행하여 동종 업종 재해사례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캠페인 등 실시(지원사업장 수의 30%이상)

③ (안전보건제도 안내)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제도 등 안내하고, 필요시공단 디딤돌 사업등과 연계

④ (방역관리지원) 감염 취약근로자 보유사업장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단감염 사례 및 주요 취약원인, 평상시 조치사항, 감염병 재난 정보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 안내

⑤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등 사업주 자율 재해예방활동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⑥ (사업장 실태평가) 사업주 의지, 근로자 참여 및 작업별 핵심 위험요인 개선여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관리

○ 테마별 지원 : ① 작업환경관리 ② 작업관리 ③ 직업건강관리

- 사업장 특성 및 핵심 위험요인에 따라 선택적 테마별 지원 실시
- 핵심 위험요인 중점지원 사항

①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 ② 유해인자 노출수준 ③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④ 근골격계부담작업 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

① (작업환경관리) 화학물질 중독예방, 폭염, 국소배기장치 관리 등

* 작업환경 취약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1/2초과사업장, 유소견자·요관찰자 발생 사업장, 하절기 건설현장) 중심으로 사업 전개

- ▶ (화학물질 중독예방) 작업환경측정 관리점검지원, MSDS관리 및 비치, 개인보호구 관리 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대상, 특별, 허가, 금지) 건강장해예방 보건 조치 확인 등
- ▶ (폭염) 하절기 건설현장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② (직업관리) 질식재해예방, 근골예방 기술지원 실시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전개

- ▶ (질식재해예방) 산소 농도측정,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확인 및 이행지원 등
- ▶ (근골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인간공학적 개선 등

③ (직업건강관리) 감정노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취약 계층 다수 보유 사업장 등에 대해 기술지원 실시

* 뇌심혈관질환 관련 유소견자(D1, D2), 요관찰자(C1, C2) 발생사업장, 고령·여성근로자 다수 보유사업장, 감정노동 취약 업종 중심으로 사업 전개

- ▶ (건강진단) 일반·특수·배치 전 건강진단 관리
- ▶ (사후관리)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간이검사 지원)
- ▶ (건강증진) 건강증진운동 운영, 응급의료체계구축 및 응급물품관리 등

9-4 | **건설분야**

◆ **목적**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추락 등 사고사망 재해예방에 기여(사업물량 : 140,000회)

◆ 사업 추진방향

-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고위험 건설현장 발굴·지원 강화
- 추락 등 사고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작업·공종 등에 기술지원 집중
- 작업진행 상황 관찰 및 위험요인 확인·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효과 극대화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핵심 메시지 전파, 실천안전수칙 및 추락 등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 지원

핵심 메시지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천안전수칙	(추락) ❶ 안전모·안전대 착용 ❷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❸ 개구부 덮개 설치
핵심 위험요인	추락 주요 기인물(지붕, 개구부, 비계[달비계 포함], 이동식 사다리)

※ 대상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테마별 기술지원 실시

- (개선확인) 보호구 미착용,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상주하여 조치완료 확인
- (근로자 안전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면담교육 등 현장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standing 교육 실시
- (교육내용)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key 메시지에 대한 교육,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사고사망 예방대책 등

◆ 목적

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이하 건물관리업")과 음식업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사업물량 : 62,500회)

◆ 사업 추진방침

- 사업장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별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예방자원 효율성 강화
- 사고사망 직접원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진 리더십 · 근로자 참여) 중점지원
- 건물관리업은 이동사다리 등에 의한 추락 재해예방에 집중 기술지원 실시
- 음식업 중 이륜차 배달원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직접고용사업장 및 실태평가 미흡·불량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 전개
- 사회적 이슈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음식업종 조리종사자 호흡기질환 예방에 집중

◆ 지원 내용

○ 사망사고 직접원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자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 사망사고 직접원인

- ①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② 3대 안전조치 지원** ③ 인력·설비·물질 등 사업장 현황 파악 ④ 재해원인분석 및 대책제시 등

※ 사고사망 · 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 건물관리업

- ①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 ② 유해인자 노출수준 ③ 계단 및 통로
- ④ 밀폐공간 작업 ⑤ 화재예방 ⑥ 보호구 지급·착용

※ 음식업

- ① 이륜차 ② 바닥 및 통로 ③ 덩웨이터(요리운반용 승강기) ④ 식자재가공
- ⑤ 화재예방 ⑥ 유해·위험물질 ⑦ 코로나-19예방 ⑧ 호흡기질환 예방

○ [3대 안전조치] 사업장 3대 안전조치 기술지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에 상응하는 기술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안내
- ※ 정비 · 보수작업 중 끼임 사고예방 중점 지원

** (3대 안전조치) 사업장 3대 안전조치 기술지원

※ 3대 안전조치

-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 ▶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취급 유해·위험물질 등 파악을 통한 기술지원, 산업재해분석 및 대책 제시, 기술자료 또는 산재예방정책·제도 홍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수행기관 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
- ▶ 건물관리업(기계식주차장, 이동식사다리), 음식업(이륜차) 현황 파악
-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사항 안내

○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50인 미만 까지 확대 시행('24년 1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주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 경영자 리더십 등의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

10.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 건강관리카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건강관리카드 발급 조건

카드 발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

<물질별 세부 교부조건>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아래 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광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2) 도자기·내화물·형상도제품(형상을 본떠 흙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 가공할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1) 도자기·내화물·형상도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하. 옥내에서 거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품을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아래 중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가. 영화비닐을 중합(결합 화합물화)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영화비닐(영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 나. 영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9.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아래 중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한다)
 -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14.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5. 비파괴검사(X-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임. 아직도 암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노동자는 비용 부담 걱정 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암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관리카드 소지자는 작업전환이나 이직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으며,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함

◆ 건강관리카드 발급 방법

- 건강관리카드를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

-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공단 직원이 발급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카드를 발급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 현직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같음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이상 종사하지 않는 노동자는 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카드를 소지한 이직 노동자 등은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건강진단 비용은 노동자가 지불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지급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방법

- 이직 등의 사유로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이상 종사하지 않는 카드소지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원정책

현장 시선 모니터링 보고서



동북·서남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원정책

현장 시선 모니터링 보고서